[UCI]I804:24011-200000237623

2009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西太后의 政治權力 硏究

- 義和團運動期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한 주 연

西太后의 政治權力 硏究

- 義和團運動期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Xitaihou's Political Authority
- Centering on The Yihetuan Movement -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한 주 연

西太后의 政治權力 硏究

- 義和團運動期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 최 진 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한 주 연

한주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진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SCT i

Ⅰ. 머리말 1

Ⅱ. 열강에의 선전 과정 4

1. 무술정변과 기해건저 5

2. 열강의 이권침탈과 의화단 10

3. 청조의 대응과 의화단운동의 확산 14

4. 열강에 대한 선전 18

Ⅲ. 입지 약화와 화의 모색 29

1. 이홍장과 동남호보 30

2. 당재상의 자립군과 손문의 혜주기의 35

Ⅳ. 신축조약과 서태후 정권의 몰락 38

1. 신축조약 38

2. 광서신정 43

Ⅴ. 맺음말 47

참고문헌 51

ABSTRACT

A Study on The Xitaihou's Political Authority

- Centering on The Yihetuan Movement -

Han, Juyon
Advisor : Prof. Choe Chinkyu, Ph.D.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declaring war and negotiating for pea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ies of the Boxer Rebellion and the political path of xitaihou And it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her political path. First, xitaihou declared war on the foreign Powers by relying on boxer powers, which wa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seven factors: emergence of anti-foreign conservatives and their insistence, failure of jihaijianchu(己亥建儲) and distrust of the foreign Powers, same anti-foreign feeling of xitaihou and boxer power, severe intervention of the foreign Powers and expanded military delegations, expansion of the boxer power and difficulty in suppression of the Qing court, advanced weapons, and documents of guizhengzhaokuai(歸政照會). This study identified the reason why xitaihou decided to resort to negotiation for peace in respect to her weakened determination. There were only a few studies on her reasons for her decision to negotiate, but the reasons are roughly presented as follows: revealing false guizhengzhaokuai documents, recognition of military priority of the foreign Powers, empowerment of boxer forces and limited suppression, organization of dongnanhubao(東南互保), risk of yangwu(洋務) force and local military forces in collusion with the foreign Powers,

independent army of tangcaichang(唐才常), sunwen's(孫文) huizhouqiyi(惠州起義), an indication of popular secession, and refuge to xian(西安). And finally, this study examined her efforts to deal with the negotiation and chaos of that time and limitations. She made such efforts as approval of dongnanhubao, punishment of anti-foreign conservatives, support of yangwu forces, declaration of xiazhaozuiji(下詔罪己), conclusion of Peace Treaty(辛丑條約), suppression of many rebellions, and decisive action of guangxuxinzheng(光緖新政), but the rebellion became enormously enlarged and ended with collapse of Qing Dynasty. Often, xitaihou is judged as a conservative, opportunist, and principal offender of anti-modernism. We can see much of her through her activities during the Boxer Rebellion. The Boxer Rebellion was expanded and the foreign Powers sent military power as she did not actively deal with it though she could dissolve or suppress it in its beginning. Though the activities of the Boxer Rebellion were based on nationalistic emotion, it was necessary to predict the risk they would bring. However, xitaihou was not able to deal with it properly and she thought the rebellion would end in a peaceful way, even when intervention by the foreign Powers was getting aggravated, and they sent military power. Due to the pressure from the foreign Powers and the delegation of military power, she declared war on them relying on the Boxer's power, but the results were not satisfactory. Then she decided to suppress the Boxer rebellion, which highlights her attitude as an opportunist. And as she concluded shameful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to maintain her political power and used them to suppress the rebellion, she was judged as a person who relied upon imperialistic powers. xitaihou broke the patriotic intention of the public to maintain her political power and had no ability to identify political reality of the world, and her excessive desire for political power hindered the development of her country.

Ⅰ. 머리말

서태후는 咸豊皇帝의 懿貴妃이자 同治皇帝의 생모로, 함풍황제가 병사한 후 수렴청정을 하기 시작하여, 동치황제 재위 기간과 光緖皇帝 재위 초기, '百日維新' 진압 이후, 이 세 차례에 걸쳐 수렴청정을 한 중국의 실질적 통치자이다. 이러한 서태후는 기존까지 청조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수구파의 보수, 기회주의자, 청조 멸망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서태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여러 연구들이 시도되어 나오고 있어 서태후에 대한 기존 평가가 재고찰 되고 있다.[1)]

통치자는 국가의 부흥을 바라기 때문에 실질적 통치자였던 서태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근대화를 지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근대화에 앞장 선 양무운동, 광서신정의 단행과 같은 개혁의 조치는 오늘날 시점에서 새롭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그러나 무술정변과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일련의 활동들에서 과연 긍정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물론 무술정변과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기는 그녀의 정치적 야욕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로서 아마도 부정적인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기에 본 논문에서는 의화단운동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서태후의 정치권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까지의 서태후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자. 서태후에 대한 서적은 많이 출간되고 있지만 아직 서태후를 다룬 연구 논문은 한 손으로도 셀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미약하고 부진한 편에 있다.[2)] 반면 의화단 운동의 연구는 주로 의화단 운동의 기원,[3)] 의화단 조직의 성격,[4)] 제국주의 열강과 교회,[5)] 淸朝의 대응

---

1) 서태후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현재 중국 역사공정의 하나인 淸史工程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청나라 멸망 100주년인 2012년에는 <淸史>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청사 공정은 사료를 중심으로 청조멸망의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2) 서태후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金東愛, 「서태후 연구」, 淑明女大大學院, 1975; 秋憲樹, 「서태후와 청조말기의 政情」, 『亞細亞女性硏究』 1, 1962; 表敎烈, 「서태후 정권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신유정변의 재검토-」, 『東洋史學硏究』 21, 1985; 許命吉, 「서태후 정치행동 양식에 관한 일고찰」, 淑明女大大學院, 1984.

과정과 동남호보의 성격,[6] 한국에 미친 영향[7] 등 사안의 복잡성과 변화무쌍한 전개 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8] 그러나 의화단운동기의 서태후를 다룬 논문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의화단운동기 집권층의 동향이나 청조의 대응과정에서 서태후의 활동을 엿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의화단운동기 집권층의 동향이 서태후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지만, 청정부의 정책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서태후였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역할이나 활동, 평가에 대한 연구가 너무 미진하

---

3) 金鍾健,「청 중, 후기 산동지역 민간비밀종교 -이괘교의 성립과 활동을 중심으로-」,『中國史硏究』23, 2003; 同,「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 -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서평-」,『中國近現代史硏究』18, 2003; 辛容石,「의화단운동 발생배경에 관한 일고 -민교불화와 유민증가-」,『湖西文化硏究』8, 1989; 李啓俊,「의화단 형성에 대한 재고찰」, 全南大大學院, 1985; 李銀子,「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본 의화단운동의 기원」,『中國學報』49, 2004; 車瓊愛,「의화단의 형성과정에 대하여」,『梨大史苑』22·23, 1988.

4) 金鍾健,「관현 의화단의 구교운동」,『大丘史學』39, 1990; 朴英淑,「의화단운동의 성격에 대하여 -"부청멸양"구호를 중심으로-」, 成均館大敎育大學院, 1994; 李尙根,「의화단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慶熙大大學院, 1969; 劉和實,「의화단운동에 관한 일고찰」, 梨花女大大學院, 1973; 同,「의화단운동에 관한 고찰」,『梨大史苑』12, 1975; 車瓊愛,「의화단운동의 성격에 대한 고찰 -청정의 대책과 관련하여-」,『梨大史苑』20, 1983.

5) 李銀子,「의화단운동 이후의 산동, 1901-1910 -성당국의 대민정책을 중심으로-」,『東洋史學硏究』79, 2002; 車瓊愛,「일본의 의화단운동 진압전쟁 참가에 대한 일고찰」,『梨花史學硏究』19, 1990; 同,「의화단 운동과 제국주의 열강: 의화단 운동의 진압과정을 중심으로」, 梨花女大大學院, 1994; 同,「독일의 의화단운동 진압전쟁 참가에 대한 일고찰」,『東洋史學硏究』50, 1995; 同,「의화단운동 진압 과정에서의 열강간의 각축과 그 추이」,『東洋學硏究』2, 1996; 同,「의화단운동시기 영국의 대중국정책」,『慶熙史學』20, 1996.

6) 李銀子,「청정의 의화단 대책을 통해 본 보수배외파의 동향」, 高麗大大學院, 1988; 同,「의화단운동시기 보수배외파의 동향」,『中國學論叢』8, 1994; 朴月羅,「의화단운동시기의 동남호보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1; 車瓊愛,「의화단운동시기 이홍장의 정치 외교적 활동 -이홍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明淸史硏究』5, 1996.

7) 趙明哲,「의화단사건과 일본의 외교전략 -만주문제와 한국문제를 중심으로-」,『日本歷史硏究』8, 1998; 同,「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일본의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梨花史學硏究』29, 2002; 車瓊愛,「의화단운동 진압전쟁이 한국의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中國現代史硏究』23, 2004; 同,「의화단운동 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明淸史硏究』24, 2005; 同,「한국인의 의화단운동 인식 및 이를 통해서 본 세계인식」,『東洋史學硏究』84, 2003; 玄光浩,「대한제국의 대러시아정책 -대한제국 수립과 의화단사건시기를 중심으로-」,『東方學志』136, 2006; 同,「대한제국기 주한러시아공사의 활동 -의화단사건과 영일동맹체결을 중심으로-」,『歷史學報』190, 2006; 同,「의화단사건 이후 일본의 대한정책」,『湖西史學』45, 2006.

8) 李銀子,「의화단운동 연구사에 관한 사실고증: 의화단사사고」,『中國現代史硏究』8, 1999; 辛容石,「현대중국의 의화단운동인식 - 최근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東洋學硏究』1, 1989.

였다.

서태후는 의화단운동기 의화단 세력을 등에 업고 한 차례 열강에게 선전 포고를 하였으며, 선전을 지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전에서 화의로 돌아서는 조치를 취하고 의화단을 진압하였다. 즉, 서태후는 의화단운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선전의 지시 및 열강과의 화의, 의화단의 진압이라는 의화단운동 연구의 중점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기에 의화단운동의 연구에 있어서 서태후는 반드시 다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흡하기에 아직까지 선전의 지시 이유와 선전에서 화의로 돌아선 이유가 불명확하다 생각된다.

그러기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태후의 연구 공백을 반영하여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정치 행로와 정치 행적의 특성을 밝혀보고, 열강과의 선전 과정과 화의의 모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화단운동기와 서태후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합해보고 Ⅱ. 열강에의 선전 과정, Ⅲ. 입지약화와 화의 모색, Ⅳ. 신축조약과 서태후정권의 몰락이라는 목차로 나누어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Ⅴ. 맺음말에서는 의화단 운동기 서태후의 활동을 정리해보고, 그녀를 평가 내리는 것으로 논의를 끝마치려 한다.

본 연구는 의화단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서태후에 대한 평가의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의화단운동기 선전을 최종적으로 지시한 서태후에 주목해보았기에 아직까지도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는 의화단운동기 열강과의 선전 지시이유와 선전에서 화의로 돌아서게 된 이유의 불명확성에 정확한 대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Ⅱ. 列强에의 宣戰 過程

먼저 義和團運動은 19세기말 山東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 화북 전역으로까지 확대된 중국민중의 대표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다.[9] 이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서태후는 잠시나마 서양 열강에게 선전 포고를 하였으며, 열강 8개국 연합군의 출동으로 국제전 양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후 東南互保로 대표되는 극심한 여론 이탈 현상을 유발하다가 결국 辛丑條約으로 열강의 군대가 수도 北京에 주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의화단운동기의 서태후는 의화단 세력을 등에 업고 한 차례 열강에게 선전 포고를 하였는데, 서태후가 선전을 지시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본다. 보수배외파의 대두와 주장, 기해건저 사건의 실패와 열강에 대한 불신, 의화단과 서태후의 반외세적 감정의 동일성, 열강의 간섭 심화와 군대 파견 및 증축, 의화단의 확산과 청조정의 진압의 어려움, 감군의 최신 무기, 귀정조회 문서 등 대략 7가지의 요인들이 서태후의 선전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10]

그런데 현재 의화단운동기 청조의 선전 지시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주장되고 있다. 하나는 제국주의 세력을 이용하여 의화단 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의 압력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청정부의 방침이 일단 의화단 세력을 이용하여 열강과 개전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열강과 화의하고 의화단을 진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11] 그러나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활동을 살펴보면 물론 열

---

9) 의화단운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운동발생 이후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의화단이 봉건몽매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는 입장, 반봉건성을 지녔다는 입장, 舊式의 농민전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반제를 향한 애국주의 투쟁이었다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10)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선전단행의 배경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7가지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①보수배외파의 대두와 주장 ②기해건저 사건의 실패와 열강에 대한 불신 ③의화단과 서태후의 반외세적 감정의 동일성 ④열강의 간섭심화와 군대파견 및 증축 ⑤의화단의 확산과 청 조정 진압의 어려움 ⑥감군의 최신무기 ⑦귀정조회문서

11) 제국주의 세력을 이용하여 의화단 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의화단운동의

강의 간섭 심화와 군대 파견 및 청조정의 의화단 진압의 어려움이라는 모습들이 모두 엿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선전을 지시한 가장 큰 이유는 서태후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서태후는 선전보다는 열강과의 화의와 평화적 해결을 더 원하고 있었음이 일련의 과정 속에 드러난다. 또한 서태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열강의 군대 증축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북경으로의 진입이었으며, 결국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광서제 복권 문서가 도착하자 선전을 지시하게 된 것만 미루어 보아도 서태후의 선전 지시이유는 개인적인 정치 야욕에 기인한 것이 가장 컸다. 이를 입증하듯 서태후는 광서제복권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나고 전세가 약화될 조짐이 보이자 선전 지시 이후 바로 열강에게 화의 요청을 단행하였다.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일련의 활동들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안간 힘을 쓴 모습으로 엿 보이며, 의화단운동기 활동에서 그녀의 정치 야욕과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가장 많이 드러난다. 그러기에 여기에서는 먼저 선전 배경 속 서태후의 모습을 일련의 사건 전개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선전을 지시한 이유와 선전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혀 볼 것이다. 아울러 선전의 지시 배경은 서태후의 정치권력 야욕을 단적으로 드러내기에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1. 戊戌政變과 己亥建儲

중국 근대사에 있어 청정부의 최고 통치 집단이 가장 극심하게 변동된 것은 1898년 9월 무술정변으로 수구파가 부상한 이후부터이다. 이 수구파의 부상은 곧 의화단 운동기의 서태후가 최종적으로 의화단 세력과 연합하여 한 차례의 대외 전쟁을 결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바로 선전은 무술정변 이래 수구파의 정권 장악이라는 청 조정 내부의 정세변화에 기인한 것도 컸다.

청말 양무운동이 추진되면서 양무파 세력이 생겨난 이래 수구파 세력은 비록 수적으로 양무파 세력을 능가하였지만 청정의 핵심 세력권 내에서는 줄곧 소외되었

과정에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관점이고, 제국주의의 압력 때문에 비롯된 것이란 주장은 선전개시의 중요한 초기요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에 해당된다 생각된다.

다. 1860년 이래 양무운동이 추진되던 초창기 중앙에서는 만주 황족이면서도 유일하게 양무파였던 공친왕 혁흔이, 지방에서는 이홍장, 좌종당, 유곤일, 장지동 등의 督撫가 중심이 되어 서태후의 지지아래 양무운동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1870년대 이홍장이 直隷總督 겸 北洋大臣에 임명되어 서태후의 수렴청정의 권좌를 보좌해 온 이후부터 청일 전쟁을 계기로 양무파가 권력의 핵심에서 물러나기까지 줄곧 수구파 세력은 이처럼 양무파 세력에 눌려 지내야 했다. [12]

그러나 1890년대 광서제의 친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청정부 내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종래 京官인 大學士, 軍機大臣, 六部尙書, 九卿 그리고 外官인 總督과 巡撫 등 모든 문무관원은 수구파이건 양무파이건 서태후의 심복에 있었고, 서태후는 대립되는 양 세력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자신의 권좌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광서제가 친정하면서 황제를 정점으로 광서제의 師傅이자 군기대인인 옹동화를 비롯하여,[13] 황제의 총애를 받던 珍妃・瑾妃의 친 오빠인 禮部侍郎 志銳및 珍妃의 師傅인 侍講學士 文廷式 등이 소위 帝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정 내부에는 서태후를 지지하는 后黨과 광서제를 지지하는 帝黨 사이의 알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청일 전쟁 시기 后黨과 帝黨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양측은 먼저 청일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帝黨의 세력 특히 옹동화는 일본과의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에 반하여, 后黨의 수뇌인 孫毓汶, 直隷總督 李鴻章 등은 타협과 양보를 주장하였다. 광서제는 당시 자신의 스승 옹동화 같은 일부 뜻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으나 청일 전쟁에서 청의 군대는 대패하였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청조는 많은 이권을 상실하였으며, 그동안 힘써온 양무운동의 실패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리하여 제당의 압력 하에 양무파의 거두 이홍장이 중앙의 권력 핵심에서

---

12) 車瓊愛,「義和團運動時期 李鴻章의 政治 外交的 活動」,『明淸史硏究』5, 1996, p.48.

13) 謝俊美,『翁同龢傳』, 中華書局, 1994, p.395. 옹동화는 본래 서태후의 신임을 얻어 광서제의 스승이 되었으며 이홍조와 같은 길을 걸어오다가 이른바 제당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광서 원년부터 옹동화가 고향으로 물러날 때까지 2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과거의 정부고관을 역임하여 관리 선발에 관여하였으며, 국자감과 동문관업무도 맡으면서 사대부 지식인들을 선발하고 또한 그들 중 일부는 각 부문의 요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연 그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물러나게 되었음은 물론 후당의 튼튼한 지지 세력이었던 軍機大臣 孫毓汶, 徐用儀 등 수구파의 몰락을 가져왔다.[14]

帝黨과 后黨, 이 양자의 대립에 있어 1898년 공친왕의 죽음 또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공친왕은 비록 서태후의 견제로 세력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만주 집권층과 한인세력 간, 帝黨과 后黨의 중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이러한 양자 간의 완충은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1898년 (광서24년 4월 10일) 그가 서거한 지 얼마안가 문제가 야기되었다.[15]

광서제가 강유위 등 변법파와 접촉하여 (광서24년 4월 23일) '明定國是'의 조서를 반포함으로써 무술변법을 실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4일 만에 광서제는 서태후의 압력으로 옹동화를 '開缺回籍'(免職歸鄕)시키는 한편, 이품 이상의 관인은 모두 서태후 앞에 사은의 뜻을 표할 것을 명해야 했다.[16] 아울러 이날 서태후의 유력한 측근인 영록은 署直隷總督으로 임명되어 북양군을 통솔하게 되었다. 결국 후당 세력은 변법에 불만을 가진 관료층의 여론을 등에 업고 (광서24년 8월 6일 정변)을 일으켜 광서제의 친정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다.[17]

이러한 청일 전쟁과 후당에 의한 무술정변은 양무와 변법파의 退陣을 가져와 청정부의 권력구조는 완전히 수구파에게 재편성되었다. 서태후의 심복인 영록은 무술정변 당시 직예총독으로서 원세개의 新建陸軍, 董福祥의 甘軍, 攝士成의 武毅軍을 북경 주위에 배치하여 정변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광서24년 8월 13일)군기 대신에 임명되고 (광서24년 8월 26일)에는 서태후로부터 군사 전권을 위임받았다.[18]

---

14) 車瓊愛,「義和團運動時期 李鴻章의 政治 外交的 活動」,『明淸史硏究』5, 1996, p.49.
15) 李銀子,「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pp.65-66.
16)『光緖朝東華錄』四, 光緖 24年 4月 27日, p.4097.
17) 무술변법과 광서제에 대한 당시 서태후의 불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서황제와 유신파는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여 당시 사회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많은 사회단체나 정치세력들을 위협하였다. 백일유신 기간에 110여건에 달하는 조서를 반포하여 사람들에게 숨돌릴틈을 주지 않았으며, 광서황제는 변법에 장애가 되는 관리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다. 특히 八股文폐지를 골자로 한 과거제도의 개혁은 과거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선비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에 사회 전복을 염려한 서태후는 긴급히 단호한 조치를 내려 정국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둘째, 유신파가 그녀를 타도하기 위한 반란 계획을 수립하여 그녀의 지위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려하였기에, 서태후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18) 李銀子,「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pp.65-66.

또한 광서제의 사촌인 단왕 재의는 비밀을 고해 준 공으로 정변 뒤에 神虎營을 장악하였는데, 곧 자신의 아들을 황위 계승자로 세우면서 영록을 누르는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수구파 관료인 裕祿이 직예총독, 만주 팔기출신의 剛毅가 형부상서에서 병부상서로, 趙舒翹가 변법에 동정적이었던 廖壽恒을 대신해 형부상서 겸 총리아문 대신이 되었다. 이처럼 무술정변으로 청조 핵심 권력은 그야말로 수구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19] 중국 근대 사상 청정이 수구파 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당시 서태후는 무술정변으로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훈정의 명목 아래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있었는데, 광서제에 대한 감정이 대단히 좋지 않아 퇴위시킬 계획을 내심 세우고 있었다. 4살배기 아이를 대궐로 데려와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무술변법을 실행한 광서제를 서태후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더욱이 강유위와 양계초가 열강의 보호를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계속 保皇運動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태후는 보황의 목표를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20]

그리하여 서태후와 후당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폐위를 사실상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己亥建儲'를 계획하였다. 기해건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己亥(1899년) 皇上의 春秋는 29세였다. 이때 承恩公 崇綺가 오랫동안 私第에 은둔하고 있었는데 大學士 徐桐이 당시 정세를 살피는데 매우 절실하였다. 尙書 啓秀도 軍機大臣으로 徐桐과 마음이 합치하였다. 大學士 榮祿은 비록 次輔로 지위하는 端王의 아래이나 太后의 신임을 받고 있어 실지의 대권은 그에게 속해있었다. 이들 三公은 密謀하여 崇綺와 徐桐이 일단 草案을 잡고 榮祿의 서명을 얻어 上秦하기로 약속하였다. 11월 28일 啓秀가 먼저 榮祿의 집에 가서 두 사람의 뜻을 전하였으나 榮祿은 크게 놀라 이를 만류하였다... 다음날 榮祿은 太后에게 독대를 청하여 "장차 폐위문제를 계획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다. 太后는 "없다. (있다고 한들) 실행

19) 高心湛,「甲年庚子年間的淸政府及其對外政策」,『K3』3, 1990, p.122.
20)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24.

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대답하였다. 榮祿이 다시 “太后께서 하시려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황상의 죄가 분명하지 않아 외국공사들이 이 일에 간섭할 수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太后는 “일이 드러나면 어찌하느냐?” 라고 물었다. 榮祿은 “꺼릴것 없습니다.” 皇上의 春秋가 왕성함에도 황자가 없으니 종실의 가까운 친척의 자를 택하여 대아가로 황상의 후계자로 삼아 궁중에서 양육시켜 서서히 大統을 탈취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太后가 오랫동안 생각한 후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했다.[21]

이와 같은 논의 끝에 서태후와 후당 세력은 광서제의 폐위 문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광서제의 폐위에 있어 열강의 압력을 의식하고 직접 폐위 시키는 것이 아닌 황사를 세움으로써 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법을 채택하였다.[22] 그리하여 수구파의 거두로 광서제의 사촌인 단왕의 아들 부준을 皇嗣로 세운 후 서서히 광서제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00년 1월 24일(광서25년 기해년 12월 24일) 서태후는 기해건저의 상유을 내렸다.[23] 당시 왕실의 家法上 황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황제를 폐위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임을 누구나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上諭반포 이후 상해로부터 상해전보국총판인 經元善을 필두로 章炳麟, 唐才常, 蔡元培를 포함한 1,231 명의 在上海 ‘各省紳商士民’이 연명하여 북경에 반대 입장의 전보를 보냈으며, 해외의 화교 수십만명도 계속 반대 입장의 전보를 보냈다.[24] 각국 공사의 의견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였기에 결국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 밀려 기해건저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무술정변으로 인해 청조정은 보수배외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열강의 반대로 인해 기해건저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서태후는 열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25]

---

21) 『戊戌變法』 一, 「崇陸傳信錄竝書」, pp.477-478.
22) 李銀子, 「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 『中國學論叢』 8, 1994, p.67.
23) 『義和團』 四, 「有開義和團上諭」, pp.10-11.
24)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社, 1973, p.463.
25) 기해건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부상한 端王과 보수배외파 세력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端王은 惇親王의 둘째 아들로, 자신의 아들을 황자로 삼으려는 ‘기해건저’를 통해 서태후의 유

2. 列强의 利權侵奪과 義和團

원래 의화단의 전신인 의화권은 1778년(건륭43)의 관방 문서에 처음으로 보이고 있다. 당시 이들은 산동・직예・하남・강소 일대에 분포되어있었으며 비밀 결사의 하나인 백련교 가운데 한 파인 팔괘교에 속하였거나, 어떤 부류는 매화권, 또는 신권, 그리고 대도회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다. 또 어떤 부류는 민간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단련으로부터 왔다고도 한다. 그리고 민간 종교와 권회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보는가 하면, 산동 서부지방의 신권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가경 13년(1808)에 청정은 의화권을 백련교의 지파인 팔괘교와 마찬가지로 사교로 보아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산동과 직예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권술을 배우면서 점점 복잡해졌고 종교적 성향을 띄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선교사의 내지 선교가 인정되면서 자발적으로 반양교 즉 반기독교운동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조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26]

그러나 청일 전쟁 이후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의화권의 조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의화단이 산동에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청일전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일 전쟁은 중국의 남, 북 지방에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낳게 하였는데, 남쪽 특히 동남, 남부 연해의 성들은 서양의 영향을 산동보다 먼저 받아 서양 문화의 수용 정도가 높아서 변법하여 부강하자는 유신 사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반면 북방은 전혀 달라 주로 자급자족의 소농 경제가 지배적이었고 폐쇄적이어서 위에서 아래까지 수구적인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아편전쟁으로도 이 지역의 문을 깨뜨리지 못하였고, 청일 전쟁 때 이 지역은 격전지로서 충격을 받았지만 사람들을 크게 각성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지역은 열강의 침략이 확대되

력한 측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崇綺는 동치제황후의 부로 동치제 사후세력을 상실하고 은둔하고 있던 인물이었고, 徐桐은 대학사로 역시 신학을 싫어한 보수주의자였으며, 啓秀는 그의 측근이었다. 이들 보수배외파는 열강에 대한 불신이 높았고, 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후 서태후의 선전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6)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12.

면 될수록 사회적 지위, 받은 교육, 생활환경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침략에 반대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산동과 직예 그리고 하남지방에 나타난 열강에 의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자연 재해는 의화단 운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지역은 주로 자급자족의 경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찍이 면화와 토포 상품의 중요 생산지여서 토포와 면화의 교역량이 제일 많았다. 각지의 상인들은 이를 구입, 산서・내몽고・요동 등지에 판매하였는데, 천진과 연대가 개항된 후 양사, 양포의 수입량이 나날이 증가되면서 농촌의 가내 방직업은 완전히 파산되었고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었다. 독일은 삼국 간섭 이후 중국에 대한, 특히 산동 지방에서의 이권 쟁취에 열을 올려, 1870년대 중국 무역이 서양 열강 가운데 제5위에 불과하였으나 1890년대에는 제2위로 올라섰다. 또한 1897년 11월, 鉅野教案을 기화로[27] 교주만 쪽으로 진출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독일은 청도를 기점으로 삼아 중국 내지 진출을 위한 철도 부설권을 얻어냈다. 철도 부설은 철도가 경유하는 지역의 분묘가 파헤쳐지고 민가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감정을 크게 해쳤으며, 토지 구입 문제를 둘러싸고 그 지역 중국인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다.뿐만 아니라 산동 지역에서의 선교사들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 지역은 반기독교 운동이 활발해져갔다. 청일 전쟁 이후 산동성 전체 108개 주현 가운데 72개 주현에 교회의 거점이 마련되었고, 크고 작은 교회의 1300여개에서 150여명의 선교사가 활동하였으며, 그 천주교 신자만 하더라도 약 8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 교회세력은 열강의 힘을 배경으로 불법을 일삼고 일반 민중에 압력을 가하여 도처에서 교안이 일어났다. 교안이 일어나면 이들은 관청을 압박하여 민중을 진압하고, 배상금을 요구하였기에 산동인들과 지방관들도 당시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대단히 높았다.[28] 또한 1898년 5월 영국군이 강제로 위해위를 점령하고 조차한 것도 산동인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29] 이밖에 자연 재해는 19세기 후반부터 화북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특히 산동 지역은 황하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직예, 하남과 함께 그 피해는 더욱 컸다. 1851

27) 曹州교안이라고도 부름.

28) 당시 서태후 또한 의화단처럼 반기독교・반외세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淸宮二年記를 살펴보면 서태후는 德齡那主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나는 예수교에 대하여 恨이 많았다.”

29)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410-411.

년부터 1900년까지 의화단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산동성 전체와 그 서부의 재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연도	전체주현		전체피해 현수		연평균 피해주현		연평균 피해주현 비율(%)	
	산동 전체	산동 서부	산동전체	산동서부	산동전체	산동서부	산동전체	산동서부
1851~1874	107	39	1,819	873	75.8	36.3	70.8	93.0
1875~1900			2,032	948	78.2	36.5	73.1	93.6
1851~1900			3,851	1,821	77.0	36.4	72.0	90.3

특히 1898년에 자연재해는 더욱 심하여 아사자만 16-17만명이나 되었으며, 가옥을 비롯한 농경지 피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당시 산동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流言을 살펴보자.

> "2월 내내 비가오지 않았으며 뜬소문이 더욱 많아졌다. ・・・3월에도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으며 전염병이 유행하고 온갖 재앙이 점점 퍼졌다. 권비는 그 기세를 이용해 말을 지어내기를 '양인을 쓸어버리면 자연히 비가 오고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31]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외세라는 의화단 운동은 이 지역에서 촉발되기 충분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열강에 반대한 의화단의 대부분 구성원을 살펴보자. 의화단의 구성원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인 농민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선원, 철도 노동자, 어민, 소금을 굽는 사람, 기술자, 소상인, 점원, 유민, 궁정의 태감, 군대안의 사병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었다.[32]

---

30) 李銀子,『義和團運動前後의 山東』, 高麗大學校出版部, 2002, p.28.
31)『義和團』二,「天津拳匪變亂紀事」, pp.8-9.
32) 철도부설이 끝나자 많은 중국인 운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들도 반외세 운동에 가담하였다.

결국 열강의 이권 침탈은 반외세라는 감정 하에 다양한 계층을 포섭한 의화권을 확대하게 하였으며, 1898년에 이르러는 의화권의 명칭이 의화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00년 봄과 여름 사이에 직예, 산동 등지의 의화권이 의화단이란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양화배척'을 외치는 의화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의화단은 일반적으로 팔괘에 따라 여덟 개의 큰 계통으로 조직되었는데, 직예의 천진, 북경지역에만 나타나고, 지방에 따라서 반드시 여덟 개가 다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의화단은 전체가 통일된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엄격한 지도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인된 지도자도 없었다.

그리하여 의화단은 평시에 그 전신인 의화권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연 촌락을 단위로 각자 壇口, 혹은 拳廠을 설치하여 무술을 배운다든지 권술을 연습하는 곳으로 삼아 大師兄, 二師兄등이 이끌어나갔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단구 위에 다시 총단구를 설치하여 그 우두머리를 老祖師 혹은 老師라고 불렀다. 이들 의화단은 일이 있을 때에는 인근의 몇 촌장에 있는 단 혹은 창을 모아 임시적으로 단을 결성하기도 하였으나, 의화단에 참가한 무리들은 평시에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권봉과 무술을 익혔다.[33] 이처럼 그들은 본래 통일된 조직이 없어서 연합 행동을 할 때에 비교적 세력이 있는 촌이 주축이 되어 인근의 무리들을 불러 모았다.

초기 의화단은 이처럼 확고히 통일된 조직이 없었지만 그 기율이 엄격하고 일률적으로 단규를 지켜야 하였으며, 단 밖에서 활동할 때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여야 하였고, 밤이면 거적을 깔고 누워 자는 고생을 할지라도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당시 의화단의 규칙은 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대를 내세웠을 뿐 향리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일반 민중은 정부의 군대는 무서워하여도 의화단은 무서워하지 않았다.[34] 그리하여 그들은 투쟁의 정의로움과 엄격한 규율로 민심을 얻게 되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갔다. 또한 각 지방의 향촌에서 의화단을 모방한 무장한 자위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더욱 확대·발전해 나갔다. 그런데 항청과 반청에서 반제 애국으로 혹은 비밀활동에서 공개적으로 변화된 의화단의 확대와 발전은

33)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413-414.
34) 同上, p.411.

서양인의 눈에 민족자위 단체의 출현으로 보였다.

3. 淸朝의 對應과 義和團運動의 擴散

의화권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 때 서태후의 태도는 확고하지 않았기에 초무양면 정책을 폈다. 이는 조정안에 의견이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파는 의화단의 조직과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반기독교 투쟁과는 구별하여 반기독교를 엄격하게 다스려 만연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조직을 향단으로 편성하여 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의화단을 이용하자는 주장이었다. 예컨대 청조 내에서 공개적으로 의화단 세력을 초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을 때인 江西道監察御史 鄭炳隣의 上奏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의화단의 권술 연습이 본래 自衛保家를 위한 수단일 뿐 反官的 성격이 없다는 것에서 연유하여 의화단을 鄕團으로 편입시켜 관에서 통제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 “ 義和鄕團이 拳術을 연습하는 것은 본래 自衛保家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敎民이 (西)洋人을 믿고 良民(=非敎徒)을 괴롭히고 관에서도 民敎爭訟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仇敎를 명목으로 군중을 선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불순분자도 있기는 하나 그 본심은 악하지 않습니다....생각컨대 私團(=義和團)을 官練으로 고치면 憂患이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청컨대 直隷總督과 山東巡撫에게 명하여 명망있는 道府大員을 團練局總辦으로 삼고 능력있고 성실한 正佐各員을 뽑아 맡기십시오. 또한 공정한 紳士를 선발하여 團總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35)

반면 다른 한파는 의화단을 백련교와 같은 사교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루 빨리 엄격하게 토벌하여 외국인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간섭하려는 구실을 주지 말아야

35)『義和團檔案史料』上,「御史 鄭炳隣摺」, pp.84-85.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袁世凱의 보고를 보면 의화단의 진압을 주장하는 일파는 전자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義和拳은 離卦敎 중의 義和門으로 白蓮敎와 同源입니다... 여기에 入會한 자들은 비록 권술을 연습한다고 하지만 실은 呪文을 외우고 神靈附體를 칭하며 槍을 가지고 춤을 추며... 총괄해서 말하면 권민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매번 수백리 밖에서 재물을 약탈하므로 自衛保家 할 수 없습니다. 또 官府에 항거하므로 도적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평민을 약탈하여 지방을 소란스럽게 하므로 오로지 洋敎(=기독교)만을 仇敎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6]

그런데 초기 의화단의 활동은 청 조정에게 큰 위협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의화단의 활동은 열강의 횡포와 이권 침탈이 원인이 된 반기독교 운동이었으며, 태평천국운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고 의화단 전체가 통일된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서태후는 의화단 활동 초기 강경한 진압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의화단이 자위보가하는 활동으로 비춰진 면이 컸다. 그리하여 청 조정은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에 의화단을 진압하는 조치를 취하며, 의화단에 대해 강경 대처와 달래기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의화단의 활동을 금지한 것만은 분명했다. 예컨대 조현에서 劉士端이 保衛身家를 내세워 1894년에 대도회를 조직하고 1896년에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했을 당시 청정은 양강총독 유곤일과 산동순무 이병형을 파견하여 이들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1897년 9월 장여매가 순무로 부임하였는데, 그는 의화단에 대하여 완화 정책을 펴다가 다음해 3월에 사직하였다.[37] 청조정은 장여매를 산동순무로 임명할 당시 의화권의 진압을 바랐다. 그러나 의화단이 궁정의 태감, 군대안의 사병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열강의 횡포 심화에서 비

---

36) 『義和團檔案史料』上, 「山東巡撫 袁世凱摺」, pp.92-95.

37) 그러나 이때부터 의화단운동은 발전하기 시작하여 신권수령인 주홍등이 치평현 일대에서 창(단)을 설치하고 권술을 가르쳤는데, 현 전체 960여장 가운데 800여 곳에 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5월에 신권을 의화권으로 고쳐 지역을 넓히고, 대도회도 의화권으로 이름을 고쳐 의화권의 활동이 산동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롯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장여매는 교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교사와 교도의 행동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1898년 6월에 의화권을 단련시켜 각 향의 자위로 삼자고 청정에 건의하였다. 이때 상주문안에 처음으로 산동성과 직예의 경계지에 있는 동명, 관현 등지의 의화권을 가리켜 '義民會' 즉 '義和團'이란 호칭을 썼다.[38] 그러나 그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39]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 산동안찰사 육현이 순무로 승진하였는데, 그는 처음에 여덟 차례나 계속 권술 훈련을 엄금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들을 의화단이라 불렀다.[40] 그러나 그는 산동에서만 20여년 관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좋지 못한 행위를 잘 알고 있어 의화권을 끌어 내리려는 초무정책을 취하였다. 이해 10월 주홍등은 부청멸양의 구호를 외치면서 의화단을 이끌고 평원현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평원교안을 일으켰는데, 당시 순무인 육현은 엄격한 진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마시키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열강의 불만을 초래하여 순무자리에서 물러나야했다.[41] 미국 공사 콩거는 선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소참에서 신군을 훈련하고 있던 원세개를 육현의 후임으로 해달라고 청조정에 요구하였는데 당시 청조정은 원세개를 산동순무 서리로 임명하는 것을 꺼렸다. 이는 원세개가 강력한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열강의 요구에 따라 원세개는 결국 순무로 부임되었고, 부임하자마자 원세개는 의화단의 세력을 분열시키면서 무력으로 적극 평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산동에서 활동하던 의화단은 직예 지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여 1900년 초에 직예의 남부, 동남부로 확산되었고 남쪽으로 보정, 신정, 정흥, 탁주일대로 하여 다시 동쪽으로 웅현, 패현 등지로 확대되었다. [42]

---

38) 『義和團檔案史料』上, p.15.

39) 車瓊愛의 「義和團運動의 性格에 대한 考察 - 淸廷의 對策과 관련하여 -」에서는 광서황제와 서태후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화단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며 의화단의 계속적인 발전을 미리 저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장여매의 대책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청조정의 계속 되는 團練組織 명령은 의화단이 공공연히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보고 있다.

40) 이해 10월부터 청정부의 공문서상에 의화권을 의화단이라 불렀고, 일부는 의화권이란 명칭을 그대로 썼다. 그리고 의화권은 그들 스스로를 의화단이라 불렀다.

41) 장여매와 육현의 행위에서 보여 지듯이 지방관 개인의 입장에 따라 의화단의 대책이 변화될 정도로 서태후는 초기 의화단의 진압과 대책에 철저하지 않았다.

42) 辛勝夏, 『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419-420.

직예로 들어온 의화단의 활동은 더욱 커져 부청멸양의 구호를 내걸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불태우며, 교민을 살해하고, 선교사를 징계하면서 철도와 전선 등 서양의 것을 파괴하였다. 당시 의화단의 揭帖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이 의화단을 돕는 것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남자에게는 인륜이 없고 여자에게는 절개가 없으니, 그놈들이 하는 짓은 진정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병법은 어렵지 않고 권법은 배울 수 있으니,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몰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 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 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 청나라 전체의 평화를 축하하자." [43]

본래 직예성에는 가톨릭교도가 많았으며 그들은 선교사의 세력을 믿고 난폭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대중의 가톨릭교도에 대한 노여움은 대단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의화단은 직예성에 들어가 그 지방의 단민과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의화단은 직예성을 바탕으로 더욱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5월 말부터는 북경에도 의화단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의화단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요대에는 칼을 차고 북경에 들어왔으며, 곳곳에 의화단의 구호가 나붙기 시작하고 壇口가 만들어 졌다. 6월 중순경에 이르러서는 30명, 40명이 무리를 지어 북경으로 들어와 사원, 사당이나 회관을 빌려 그들의 기치를 꽂았다.[44] 여기에 북경 주민들도 의화단에 참가하여 그 수는 갈수록 늘

---

43) 『東洋史硏究資料輯要』, 「義和團揭帖」, p.244.

44) 의화단이 어떻게 대량으로 京城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연구는 기존까지 서태후가 의화단의 북경 진입을 묵인했다는 주장과 청정부가 의화단을 막을 힘이 없었다고 주장되었으나, 李銀子의 「義和團運動 硏究史에 관한 事實考證」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고 선전을 주장한 보수배외파는 서태후가 의화단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틈을 타서 성문을 열고 의화단의 자유출입을 허가하여 이에 의화단세력이 순조롭게 북경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때까지도 서태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화단의 투쟁을 종식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었으며, 심지어 일부 왕부에서도 단을 설치하였고 한족 출신의 대신들도 의화단의 신술을 믿었다. 뿐만 아니라 만족 출신의 왕공, 귀족에서 군 장교와 사병, 궁중의 태감까지 의화단에 가입하여 6월 하순에 이르러 이미 북경 성안에 1천여개의 단구가 만들어 지고 그 수도 10만명에 육박하였다.[45] 이에 산서에서 시작된 의화단 활동은 신속하게 확대되어 하남성, 내몽골, 산동・직예, 동북지방의 영구, 금주, 조양, 남경, 진강, 태주, 서주, 호남, 호북, 강서, 절강, 사천, 북경 까지 확대되어갔다.[46]

4. 列强에 대한 宣戰

의화단의 세력이 계속 확대되어가자 열강은 의화단에 대해 엄하게 진압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청조 역시 열강과 마찬가지로 의화단이 확대되어가자 위협을 느끼고 의화단의 진압이라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책량상 열강은 일률적으로 모두 진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청정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만을 엄하게 다스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별하는 차이가 존재하여 열강과 청조사이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청조는 1900년 1월 11일 다음과 같은 上諭를 내렸다.

> "근래 各省에서 敎案이 여러 번 발생하자 言者들은 그때마다 會匪를 엄히 정벌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會에는 구별이 있다. 不逞之徒(불순분자)들은 結黨하여 군중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므로 용서해주기 어렵다. 그렇지만 安分良民들이 自衛를 위해 技藝를 익히거나 村衆과 연합하여 閭里를 보호하려는 것은 서로 지키고 돕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관이 이를 분별하지 않고 謠言을 잘못 듣고 會匪라고 지목하여 체포・살해하니... 各省의 督撫는 賢吏를 신중히 택하여 지방을 다스려 民과 휴식하도록 하며 民敎爭訟詩에는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지방관에게

45)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20.
46) 同上, pp.421-424.

엄히 칙하여 안건을 처리할 때 단지 匪인지의 여부 혹은 亂을 일으켰는지의 여부만을 문책하고, 會에 속했는지 혹은 敎(民)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 47)

이 上諭는 청조가 진압을 명하였으나 拳民을 不逞之徒와 安分良民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열강은 청조의 이러한 不逞之徒와 安分良民으로 구분하는 태도에 자국민의 신변 보호가 우선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영국공사 맥도날드는 "1월 11일자 上諭는 청정부가 의화권 등의 結社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48)고 청조에 항의하였고, 미국공사 콩거 역시 이와 같은 상유와 태도로 인해 산동 북부와 직예 남부에 권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總署에 항의하였다.49) 또 영국·미국·프랑스·독일 4국 공사는 1월 11일 상유의 내용에 대해 1월 15일 영국 공사관에서 처음으로 공동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조치를 보이며, 1월 11일 상유의 내용을 해명할 것과 義和拳과 大刀會의 진압을 명하는 상유를 반포 할 것 등을 청정부에 요구하였다.50) 4국 공사는 처음 회담을 열어 개최했을 때부터 자신들의 이러한 요구 즉, 일률적인 진압의 요구가 수락되지 않으면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여기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타 조치란 병역에 의한 강압적 초치를 취함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청정부는 이러한 4국 공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열강은 청정부의 대답이 없자 1900년 2월 22일 회답을 촉구하였고, 청조는 그에 답변으로 "조정은 정월 20일 直隷總督과 山東巡撫에게 권회엄금을 명하는 상유를 내렸다"는 답변을 보냈다.51) 그런데 열강은 청조정의 짤막한 답변에 항의하며 정월 20일 상유가 진압을 요구한 結社를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고, 단지 해당성 督撫에게 소란을 방지하라고 간단히 명했다는 이유로 불만의 뜻을 표했다.52) 그리고 3월 2일 개최된 總

47)『義和團檔案史料』上,「上諭」, p.56.
48)『英國監皮書有關義和團運動資料選譯』,「中國策3號, 1900」, 中華書局, 1980, p.7. (이하『監皮書』로 略記하겠음).
49)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1900, China (Washington: Goverment Printing Office, 1901), NO.316, pp.93-94. (이하 FRUS 1900으로 略記하겠음).
50)『監皮書』,「中國策3號, 1900」, pp.12-13.
51) FRUS 1900, NO.338, pp.107-108.

署와 5국공사와의 회담에서 5국 공사는 계속해서 上諭의 京報 게재와 義和拳과 大刀會의 언급을 주장했다. 總署首席大臣 慶親王과 總署大臣들은 대도회는 의화권과 같은 성질의 결사이므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경보에 게재하는 것보다 직접 상유를 해당 관리에게 전달하여 告示를 통해 民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 법률상 이미 공포된 상유를 다시 경보에 게재한 예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제의를 거절하였다.[53]

그런데 이와 같은 열강의 계속된 항의와 심지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열강의 태도는 관료층 내에 보수 배외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청조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의화단 세력을 초무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당시 정병린, 단군왕 재의, 장친왕 재훈, 보국공 재란, 군기대신 강의, 대학사 서동 등은 이러한 열강의 횡포에 대해 선전하기를 서태후에게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전파의 핵심으로 '抗外敵', '雪國恥'를 내세워 민심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당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유록, 원세개, 군기대신 왕문소, 호부상서 입산, 병부상서 서용의, 내각학사 연원, 대상시경 영창, 이부시랑 허경징 등은 주화파의 핵심으로 의화단을 '亂民'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진압해야만 열강의 북경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총리아문을 주관한 경친왕 혁광도 이에 동조하였으며 양강총독 유곤일, 양광총독 이홍장, 호광총독 장지동, 산동순무 원세개 등 화중과 화남의 지방 대신도 모두 주화를 주장하였다.[54]

서태후와 청조정이 의화단에 대한 대책에 이처럼 고심하고 있는 사이 1900년 5월말 직예 淶水縣[55]에서 발생한 소위 내수교안에서 의화단은 관병과 충돌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내수련에서 확대되어 3만이 넘는 의화단민은 가주성을 점거하고 량보선 철도를 파괴하고 정거장·전선 등을 불태웠다. 당시 군기대신 겸 형부상서인

---

52) 『監皮書』, 「中國策3號, 1900」, p.13.
53) 『監皮書』, 「中國策3號, 1900」, p.14.
54) 金培喆, 「敎案과 義和團」, 『講座中國史』Ⅵ, 1989, p.77.
55) 내수련은 교민과 양민의 불화가 심했던 지역으로 1900년 4월 의화권술이 직예까지 확대되면서 권회가 조직된 곳이다. 이곳의 권민들은 교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4월 14일 내수현 高洛村에 모여 교민을 살해하고 가옥을 방화하였다. 分統 楊福同등이 파견되어 권민을 체포 압송하였으나 소란은 계속되어, 24일에 2-3000명의 권민들이 오히려 楊福同 등을 살해하였다.

趙舒翹는 이미 이들을 진압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느끼고 5월 30일에 의화단을 초무하여 그들을 군대에 편입시켜 외국에 저항하자고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서태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56]

서태후는 4국 공사에서 제시한 열강의 군대 파견 조짐이 예상되었기에 열강과의 선전과 의화단의 진압 모두 고려하고 있었으나, 의화단과 열강 이 둘 모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있었다. [57]

그러나 산동성 서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의화단 운동은 점차 세력이 더 발전하여 1900년 2월에는 직예성 地城으로까지 확대되었고, 5월 말경에는 의화 단민이 북경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월 초에는 북경성 안팎에 壇이 설치되고 揭帖이 걸리는 등 의화단은 북경에서 공공연히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58] 이들은 自衛保家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양식 건물과 시설물(교회, 병원, 철도, 통신)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을 습격하여 외국인을 살해하는 등 배외적 활동하였기에 결국 5월 들어서면서부터 영・미・독・프랑스 4국 공사는 연명으로 청 정부가 2개월 이내에 의화단을 진압하지 않으면, 육해군을 산동, 직예 두성으로 진입시켜 청을 대신하여 평정하겠다는 조회를 보내왔다.

서태후는 단왕과 같은 강력한 보수배외파의 선전주장, 의화단 진압의 어려움, 기해건저 사건의 실패, 열강의 간섭 심화, 중국민중의 보수배외적 감정 속에서 열강과의 선전을 계획하였지만 선전의 단행은 유보 한 채 조심성을 기하며 평화적인 선에서 사태 수습을 계속 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서태후가 이토록 조심성을 기하였는지 1900년 6월 4일 콩거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그러나 지난 두 달동안 거의 권비들이 체포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로 여깁니다. 상유의 내용은 권회에 대해 적대적 어조이나 실제로는 암묵적 후원자로서 그들과 연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

56)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25.
57) 서태후는 의화단민중의 세력과 군사적으로 위협해 오는 열강의 세력에 대하여 확고한 정책이 없었으며, 열강과 의화단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58) 車瓊愛,「義和團運動時期 李鴻章의 政治 外交的 活動」,『明淸史硏究』5, 1996, p.52.

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은 청정부 각료 내 심각한 분열 때문에 야기 된 것입니다. 한편은 강력한 배외파로 알려진 端王·崇綺·徐桐 등의 세력이고, 다른 한편은 慶親王을 중심으로한 總署大臣들입니다. 그러나 경친왕을 제외한 나머지 총서대신들은 서태후와의 직접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영록은 서태후의 조카로 배외주의자이면서도 端王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어느 한편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 하에서는 서태후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태후 역시 본래 배외감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배외감정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청정부는 의화단과 대처하려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청정부가 정말 강력한 조처를 취한다면 무서운 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59]

'청정부가 정말 강력한 조처를 취한다면 무서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구절은 열강과의 선전도 의화단의 강경한 진압도 쉽사리 단행할 수 없었던 청국의 상황과 서태후의 정책 결정의 조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열강은 내수교안과 가주성 점거 사건, 의화단의 무리의 북경 진입으로 인해 제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경으로 군대를 끌어들이기로 하고 이 결정 사실을 총리아문에 통보하였다. 서태후는 군대의 동원을 가급적이면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5월 28일경에 영·프·러·미국의 4국 공사는 총리아문에 '중국정부가 어떻게 하던 군대를 북경에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통보하였다.[60]

서태후는 열강들의 요구를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할 수 없이 이를 허락하고 천진에 있는 직예총독 유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군대 수송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열강의 군대 400명은 5월 30일 저녁 북경으로 들어왔다.[61] 그런데 5월 30일 서태후가 군대 수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때

59) FRUS 1900, NO.486, p.140.
60)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25.
61) 내수교안 사건을 계기로 열강은 總署와의 평화적 교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력간섭을 행하여 북경에 있는 공사관보호를 위해 제1차 파병을 감행하였다.

까지는 열강과의 선전도 계획하였지만 그 실행의 적극성 보다는 여전히 조심성을 보였다.

서태후는 1900년 5월말 까지 의화단에 대하여 반교회 투쟁을 금지시키고 그 우두머리를 '비'로 벌주었으며, 의화단에 대하여 진압과 해산을 정책으로 폈다. 5월 31일 장지동이 6월 8일 유곤일이 서태후에게 의화단 진압에 무력 사용을 건의하였으나 서태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6월 5일 권비를 설득·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군기대신 趙舒翹를 가주에 보내 정세를 살피게 하고 6일에는 고위대신을 소집하여 밀의하였다. 이때 榮祿과 禮王 만이 超撫에 반대하였다. 趙舒翹에 뒤이어 서태후는 대학사 강의를 의화단이 활동하고 있는 가주로 보내 정세를 살피도록 하였는데, 강의는 그 곳에서 의화단을 진압하는 청군에게 토벌을 중지토록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며, 귀경하여 서태후에게 의화단을 해산할 수 없다고 건의하였다.[62]

서태후는 6일 고위 대신을 소집하여 밀의하였는데, 밀의 이후 공개 석상에서 외국을 쫓아내기를 희망했다. 당시 최신 무기와 전투 경력이 있어 열강이 두려워한 董福祥 부대는 서태후의 총진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6월 10일, 열강은 영국의 주장아래 각 국의 군대를 더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衛兵 파견에 이어 10일 8개국 연합군은 영국해군중장 세이무어를 사령관으로 약 2000여명을 결성하여 천진과 북경으로의 진공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서태후는 열강의 진공을 대비하여 端王을 總署首席大臣으로, 啓秀·那同·搏興 등을 새로이 總署大臣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6월 13일 서태후는 유록에게 聶士成으로 하여금 天津 부근 철로가 있는 곳에 가서 입경하는 각국 군대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大沽의 방위를 철저히 하도록 명함으로써 열강과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63]

의화단을 진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강과의 전쟁을 원치도 않았던 서태후는 열강의 군대 증축과 북경 진공으로 인해 결국 열강과의 선전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열강의 국가별 군대수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62)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426-427.
63) 李銀子,「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pp.79-80.

시기	대고포대	5월30일	6월10일	7월	북경점령 후
일본	1척	25명	54명	9000명	22000명
영국	7척	82명	915명	2500명	33450명
미국	1척	56명	111명	2000명	5600-5700명
러시아	6척	74명	312명	3500명	17000-18000명
프랑스	2척	78명	157명	1000명	15600명
독일	2척	51명	512명	200명	22500명
이탈리아	2척	41명	42명	100명	2000명
오스트리아	1척	85명	26명		400 -500명
합계	22척	442명	2129명	18300명	약 11만명

그런데 열강은 落垈와 廊坊에서 의화단의 저항에 밀려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다. 16일 세이무어가 지휘하는 8개국 연합군은 의화단의 저항으로 고립되어있는 상황에 대고해군사령관에게 17일 새벽 2시경까지 포고를 양도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서태후는 17일 왕대신과 6부상서, 9경이 모인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의화단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서태후는 어전회의 전에 먼저 王公·貝勤 및 榮祿과 剛毅를 불러 밀의했는데 이 밀의에서 이미 개전의 뜻은 결정되었다. 당시 어전회의 석상에서 수구파는 의화단 민중을 '義民'·'拳民'·'義士' 등으로 칭하며 이들의 신권을 이용해 滅洋 할 수 있으니 이들과 더불어 개전할 것을 주장하였고 반면, 영록은 의화단민중을 '拳匪'·'亂民'으로 규정하고 국내 의화단 세력에 대하여는 살수를, 국외 열강 세력에 대하여는 화친을 주장하였다.[64] 어전회의 결과, 서태후는 6월 17일 의화단세력을 이용해 열강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날 상유에서는 裕祿과 聶士成에게 來京하는 열강군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과 拳民을 '義民'으로 규정하고 剛毅와 董福祥에게 권민을 소집하여 군에 편입시킬 것을 명하였다. 서태후는 당시 열강에게 계속 진군을 해오면 청조정도 선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은 대고포대를 진격하고 점령하자 서태

64) 『義和團』 一, 「庚子國變記」, pp.11-44.

후는 19일 각국 공사에게 24시간 내 북경을 떠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감군과 권민이 공사관을 포위·공격하기 시작하였다.[65] 6월 20일 직예 총독 유록은 천진의 의화단이 3만명 가까이 모여 교회를 불태우고 서양인을 죽이려 하는데 이를 평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들을 달래자고 서태후에게 건의하였다. 이 사실은 서태후를 더욱 크게 고무시켰다.[66]

결국 서태후는 의화단 즉 민심을 이용하여 열강을 막아내 청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구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열강에 대한 선전을 결심하였다. 또한 동복상이 이끄는 무위후군(감군)이 최신식 무기를 소유하여 충분한 전투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선전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서태후는 대고포대가 점령당하고 열강으로 부터 광서제 복권 요수문서(歸政照會)[67]가 접수되자 6월 21일 열강과의 선전을 결정하고 각성의 독무에게 인민을 불러 모아 단련을 편성하라고 명령하였다.[68] 보수배외파의 강력한 선전 주장과 의화단 진압의 어려움, 열강의 군대 파병에도 열강과의 전쟁에 조심성을 기했던 서태후는 결국 열강의 군대 증축 및 북경으로의 진공, 그리고 귀정 문서로 미루어 열강이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혀 6월 21일 내외에 전쟁을 알리는 상유를 공포하였던 것이다.[69] 결국 서태후는 의화단에 대한 토벌과 위무론의 격렬한 대립과 광서제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 안정과 유지를 위하여 선전을 개시하였다.[70]

그런데 서태후가 선전을 결정하고 명하였으나 그녀의 선전조서는 대내용으로 열강 측에 상세히 교부되지 않았다. 또한 청군도 적극적인 전쟁 태세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외국공사관 구역에 대한 '제한된' 공격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71] 그 이유는 선전이 결정된 3·4일 뒤 <歸政照會>가 재의가 조작한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권민의 행위가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

65) 李銀子,「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pp.81-82.
66)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27.
67) 귀정조회의 내용인 즉 한곳을 선택하여 황제가 머물도록 하고, 각성의 세금을 대리 징수하며, 천하의 병권을 대신 관리하고, 정치를 서태후에서 광서제로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서태후는 폐립 좌절을 계기로 열강세력이 광서제를 복권시킬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68) 張玉田,「庚子那拉氏 對外宣戰遠因的 探討」,『遼寧大學學報』4, 1982.
69)『義和團檔案史料』上,「上諭」, pp.162-163.
70)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26.
71) 金培喆,「敎案과 義和團」,『講座中國史』Ⅵ, 1989, p.73.

이었다.[72]

6월 25일 상유를 보면 “외국과 宣戰이 개시된 이래 우리 皇太后는 여러 차례 內帑을 발하여 將士와 義民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時局이 어려우니 너희 將士 등은 마땅히 이에 보답하여 공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이홍장 등에게 보낸 電旨에서는 “兵民이 모두 憤하여 在京公使館이 위급한 상태이나 우리는 여전히 힘껏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정세이다.” 라고 하여 공사관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73]

선전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귀정조회문서가 허위로 드러났음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는 곧 선전의 이유가 서태후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에 기인한 것이 가장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6월 25일 단왕이 단민 60여명을 이끌고 궁내로 침입하여 황제를 살해하려 했으나 서태후의 저지로 실패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부터 단왕과 서태후의 정책의 일관성은 무너지고 있었다.[74]

그리하여 비밀 내에 6월 29일 各出使大臣에게 다음과 같은 電旨를 보냈다.

> “ 현재 이미 엄히 령을 내려 병사를 이끌고 가서 공사관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난민(의화단)들은 법을 바로 하여 엄벌하도록 하겠다. ”[75]

서태후는 이 각출사 대신에게 보낸 전지에서 본인의 의도를 각국 공사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단왕과 같은 보수배외파 몰래 비밀 내에 추진하였다.[76] 그리고 7월 3일에는 러시아・일본・영국 3개국에게 화의를 요청하고 3국이 나서서 팔련군의 공격을 중지시켜 주기를 바랐다.[77] 즉 서태후는 선전을 지시하면서도 열

---

72) 광서제복권요구문서로 인해 서태후가 선전을 지시하였으나 선전지시가 아직 열강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전쟁상태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광서제복권요구문서가 단왕 재의에 의해 조작된 허위임이 드러났기에 서태후는 곧 선전에서 화의로 돌아섰다.

73) 李銀子,「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pp.82-83.

74) 同上, p.83. 단왕의 독단적인 활동은 서태후로 하여금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이들 간의 입장 차이는 청조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광서제와 단왕을 통해 보았을 때 서태후는 그녀와 상의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동을 굉장히 꺼려한 듯하다.

75)『義和團檔案史料』上,「軍機處奇出使俄國大臣楊儒等電旨」, pp.202-203.

76) 李銀子,「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p.84.

강에게 화의를 요청하는 이중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단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홍장과 장지동과 같은 양무파의 세력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북상을 촉구하였다.

7월 14일 연합군은 결국 천진을 함락시켰다. 그러자 서태후는 7월 17일 공식적으로 의화단을 '亂民'으로 지목하고 곧, 의화단을 진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78] 또한 미국・독일・프랑스에게 和議를 요청하는 국서를 보냈다.[79] 아울러 18일에는 공사관 보호가 조정의 기본적인 뜻임을 거듭 확인하였다.[80] 端王은 이것에 노골적 반감을 표시하였으나 서태후는 단왕의 의견을 묵살하였다.[81]

열강은 서태후의 공식적 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경을 함락하기 이전에는 청정부와 화의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82] 결국 서태후는 화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거부로 인해 열강과의 선전을 한동안 지속시켜나가야 했다.

이미 천진개전에서 聶士成의 군대를 잃은 서태후는 7월 26일 강의의 천거로 당시 長江水師提督으로 있었던 前山東巡撫 李秉衡에게 榮祿과 함께 北洋軍을 통솔하게 하는 파격적 조치를 내렸다.[83] 李秉衡은 당시 입경하여 서태후를 소견한 자리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과 '義民'을 招撫・利用할것을 주장하였다.[84] 그리하여 李秉衡의 지휘 하에 서태후는 선전을 계속 해나갔다. 물론 열강의 화의 요청 거부가 선전을 지속시킨 가장 큰 이유였지만 서태후는 선전으로 인해 자신이 지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방안과 열강과의 화의 강화 조약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端王일파는 天津 함락 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백련교도라는 이유로 북경 시가에서 살해하는 등 공포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었으며, 또한 열세를 회복하기 위해 許景澄 등 5대신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며 대

---

77)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36.
78)『義和團檔案史料』上,「上諭」, pp.327-328.
79)『義和團檔案史料』上,「上諭」, pp.328-329.
80)『義和團檔案史料』上,「軍機處寄署理福州將軍善聯等上諭」, p.339.
81)『義和團』一,「庚子國變記」, p.19.
82)『監皮書』,「中國策1號, 1901」, p.136.
83)『義和團檔案史料』上,「上諭」, p.385.
84)『義和團』一,「庚子國變記」, p.20.

세를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였다.[85] 그러나 결국 8월 15일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점령되었다. 서태후는 북경의 내성과 자금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8월 14일 광서제와 몇 명의 소수 관리들만을 데리고 황급히 북경을 떠나야 했다.

85) 李銀子,「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p.85.

Ⅲ. 立地 弱化와 和議 摸索

앞서 서태후의 선전 배경에서는 무술정변과 보수배외파의 대두, 열강의 간섭 심화와 군대파견, 의화단 운동의 확산과 열강과의 선전을 통해 서태후의 선전 단행 배경과 선전 단행 이유 그리고 서태후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선전의 지시로 인해 서태후가 직면한 어려움과 서태후의 정치권력이 약화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태후가 선전에서 화의로 돌아서게 된 이유를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86]

먼저 선전에서 화의로 돌아선 연구도 앞선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미진하였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대략 귀정조회문서의 허위발각, 열강의 군사적 우위 인식, 의화단 세력의 강화와 진압의 한계, 동남호보의 결성, 양무파・지방독무들의 열강과의 결탁 위험(이홍장・장지동 등), 당재상의 자립군, 손문의 혜주기의, 민심 이탈의 조짐, 서안으로의 피난 등 대략 서태후의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와 세력들이 등장한 것이 서태후가 화의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였다.[87]

이제 선전의 지시로 인해 의화단운동기 때 서태후의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동남호보와 이홍장, 손문의 혜주기의, 당재상의 자립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는 서태후가 취한 어려움을 직접적이고 단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서태후가 이들 세력에게 취한 조치 또한 서태후의 정치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기에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의화단운동기 이홍장의 정치적 활동과 서태후가 동남호보세력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취한 활동들은 서태후의 통치 능력을 엿보게 해준다. 이제 일련의 전개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86) 의화단운동기 선전에서 화의로 돌아선 이유는 이 8가지에 해당된 듯하다. ①의화단의 확대로 인한 청조위협 ②귀정조회문서가 조작됨이 밝혀짐 ③광서제를 살해하려는 등 단왕의 독단적 활동 강화 ④동남호보 결성 ⑤이홍장・장지동 등 양무파와 열강의 결탁위험 대두 ⑥당재상의 자립군, 손문의 혜주기의 등 각종 혁명의 정치적 움직임 ⑦민심이탈의 조짐 ⑧북경함락으로 인한 서안으로의 피난이 서태후의 정책결정에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87) 의화단운동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서태후는 귀정조회문서가 허위로 들어나자 바로 화의정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뚜렷이 들어났지만 서태후의 화의 요청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런 복합적 상황들이 서태후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에, 이 점에 주목해 본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1. 李鴻章과 東南互保

의화단에 대한 토벌과 무마를 중심으로 조정안이 대립되고 있을 때 지방의 독무 가운데 의화단을 토벌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의화단이 직예로 들어와 소란을 피울 때인 5월 31일 호광총독 장지동은 '이들이 결코 양민이 아니니 법에 따라 주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양강총독 유곤일도 6월8일에 '마땅히 토벌하여야 하며 한 두 계열만 통쾌하게 토벌하면 나머지 무리들은 자멸 한다'고 하여 철저한 토벌을 주장하였다.[88] 그런데도 서태후는 그들에게 6월 21일 선전의 지시를 내렸다.

이 선전의 지시로 인해 지방 독무들은 과연 서태후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당시 유곤일은 이 지시를 받자마자 6월 22일에 동남지역은 국가 재원이 나오는 지역으로 인식하여 만약에 이곳을 보전하면 대국에 전기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장지동에게 자기의 호보 의사를 통보하였다. 장지동도 유곤일의 자보 의견에 찬성하고 두 사람은 상의하여 조정의 선전포고 지시를 황권을 찬탈하려는 거짓 명령 즉, '矯詔'라 하여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89] 그리고 이들은 이홍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홍장도 선전포고 지시를 내리기 하루 전날인 6월 20일 총리아문에 건의하여 '조정에 먼저 내란을 평정하고 다시 외국인의 모욕을 갚자'라고 한일이 있어서 처음부터 의화단을 진압하자는 편에 서있었다.[90] 그러므로 이홍장은 유곤일과 장지동의 의견에 동의하고 중앙의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면서 신속히 의화단을 해산하고 외국인들과 공사관을 보호하라고 요구하였다.[91]

---

88)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27.

89) 이들은 보수배외파가 광서제를 폐위시키고 단왕의 아들 부준을 황위계승자로 앉히려는 의도에서 선전포고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태후의 기해건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90)『李文忠公全書』22,「電稿」, pp.26-27.

91) 동남호보의 주체는 광동의 이홍장, 남경의 유곤일, 무창의 장지동, 그리고 산동의 원세개로서 이들은 북상하라는 중앙의 명령을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관할지역내에서 의화단으로부터 외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것임을 열강 측과 합의하였다.

한편, 의화단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을 때인 6월14일 주상해 영국총영사인 위렌은 본국의 외상 샐리스버리에게 만일 영국이 청의 조정과 협상이 결렬되면 호광·양광총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의 양해를 얻어 그들 관할 지역의 질서를 안정시키자고 건의하였다. 샐리스버리는 위렌의 의견에 동의하고 양강, 호광총독과의 교섭을 위렌에게 위임하였다. 6월 중순 열강의 연합군이 북경으로 진공하는 급박한 정세 속에 상해의 영국 대리총영사 위렌(P.L.Warren)은 유곤일, 장지동 등에게 그들이 관할지역 질서유지를 보증한다면 영국 해군의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들의 제의로 인해 청조의 선전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곤일, 장지동 등은 선전조서 자체를 차압하여 개전의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정부의 명령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 같은 상황 아래 이홍장은 전국철로독판사무대신 성선회와 상해도 여련원에게 상해에 주재하는 각 국의 영사들에게 그들의 자보의사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6월 26일에 성선회, 여련원은 장지동과 유곤일을 대표하는 도삼삽·심애창과 함께 주상해 각 국 영사들과 호보에 관한 정식 담판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동남호보약관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성선회가 기초한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 장정이 체결되자 산동순무 원세개도 이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절강순무 유수당도 참가하기로 하였다. 7월 14일에는 민절총독 허응규도 호응하여 영·미·프·러 등 6개국과 동남자보장정에 따라 「복건호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호보의 범위는 양강, 호강, 양광을 포함하여 산동, 복건, 절강, 안휘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의화단이 강남지구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팔련군은 집중적으로 의화단을 진압할 수 있었다.

호보조약의 체결은 '훌륭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국내법과 국제법상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지방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 국제법으로 볼 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즉 당시 황제가 전권을 위임하지도 않은 지방장관이 독자적인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관례나 법적으로 맞지 않았다.[92]

열강이 침입해 들어오고, 의화단의 세력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지방과 달리

92)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428-429.

북경의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다. 위기에 직면한 서태후는 6월 15일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한직에 물러나 있던 이홍장을 북경으로 오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북상을 명령받은 이홍장은 무려 4개월이 지난 후인 10월 11일에서야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홍장이 북상을 지연한 4개월 동안 청 정부는 열강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고(6월21일), 8월 14일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으며, 8월 15일 북경이 열강에 점령되었다. 북경이 열강에 의해 점령된 이후 중국 각지는 열강이 구성한 연합군의 보복 작전으로 약탈과 학살이 연속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사태에서 서태후와 청정은 국가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인자로 이홍장을 지목했다. 그 이유는 이홍장이 열강과 화의하기에 가장 뛰어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동남호보나 양광독립에 이홍장이 직접 간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梁啓超는 이홍장을 평한 글에서, "才氣는 있으나 學識이 없으며, 내놓을 만한 경력은 많으나 정의감은 없는 인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홍장의 기회주의적인면모를 보여주는 글이다.[93] 서태후 또한 이러한 이홍장의 면모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무술정변이 일어났을 당시 서태후는 다시 실권을 장악하였지만, 이홍장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시켰으며, 1899년 산동의 황하치수공사에 총책으로 파견하였었다. 이홍장은 노구를 핑계로 여러 차례 서태후에게 고사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때 이홍장에 대해 불만을 품은 서태후는 "어떤자가 그대를 강당이라고 한다"며 경계의 뜻을 표명하고[94], 일본으로 망명한 강유위와 양계초가 싱가폴을 오가며 해외의 화교를 연합해 보황회를 조직하려 하자, 서태후는 이홍장을 양광총독으로 파견하여 강유위와 양계초를 체포하도록 하여 그를 심판대에 놓아두기 까지 했었다.[95]

서태후는 자칫하면 청조에 반기를 드는 중심 세력의 축이 될 수 있었던 이홍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열강과의 선전과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홍장이 북상을 지연한 4개월 동안 청조는 무려 10차례 이상 이홍장

93) 梁啓超,「論李鴻章」,『飮氷室全集』4, 1972, p.90.
94) 劉光水,「李鴻章與西太后關係係略」,『北方論叢』1, 1992, (『K3』,1992年 제5기에 재수록, p.77.)
95) 李守孔,『李鴻章傳』, 臺北學生書局, 1985, p.328.

에게 북상을 촉구하는 전문을 보냈다.

특히 의화단의 세력을 등에 없고 있는 단왕 재의의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의화단의 공격 목표가 자신에게 까지 미칠까 두려워진 서태후는 이홍장이 빨리 북상하여 열강과 화의를 의논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이홍장의 북상을 더욱 재촉하였다.[96]

그러나 속히 북상하라는 서태후의 명령을 받고도 이홍장은 휴가를 요청하는가 하면 감기와 설사 등을 이유로 북상의 시일을 끌며 서태후의 명령을 외면했다. 그리고 6월 26일 이홍장은 張之洞, 劉坤一 등 東南 督撫들과 함께 장강유역의 질서를 유지하여 中外商民의 생명과 상업을 보전할 것을 약속하는 소위 東南互保를 열강과 체결하였다. 또한 혼미한 정국 속에서 별도로 손문의 革命派側과 내통하며 양광 독립을 추진하였다. 1900년 6월 17일은 兩廣獨立을 추진하기 위해 이홍장 측과 손문측이 정식으로 접촉한 사료상의 최초 날짜인데, 이 첫 접촉에서 이홍장은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兩廣獨立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을 표하여 손문이 크게 실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상황이 달라지면 兩廣獨立을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97]

이처럼 이홍장이 북상명령을 무시하고 東南互保를 유지하며, 다른 한편으로 북경 정국의 상황에 따라 양광 독립의 가능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태후는 이홍장에게 북상을 재촉하는 전보를 계속 보내왔다. 7월 1일에는 劉坤一의 북상 재촉전문이, 7월 3일과 7월 6일에는 청조의 재촉 전문이 도착하였다. 그래도 이홍장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서태후는 7월 8일 지금까지 공식적인 직함도 부여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북상을 명령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홍장을 直隷總督 兼 北洋大臣으로 정식 임명하면서 러시아 배로 북상하던가 아니면 육로로 오라고 재촉하였다.[98] 7월 12일 청정은 다섯 번째 북상을 재촉하는 전문을 보냈다. 이날 이홍장은 마침내 북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광주주재 각국 영사들이 가지 말 것을 권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99]

---

96) 車瓊愛,「義和團運動의 性格에 대한 考察-淸廷의 對策과 관련하여-」,『梨大史苑』20, 1983, p.134.
97) 車瓊愛,「義和團運動時期 李鴻章의 政治 外交的 活動」,『明淸史硏究』5, 1996, pp.55-57.
98)『義和團』四, p.29.
99)『李文忠公全集』七, pp.176-177.

아마도 무조건적 북상에는 불복하였지만 청정부의 핵심적 지위인 直隷總督 兼北洋大臣이라는 공식직함에 전권대신 취임 가능성이 보이자 북상을 결심한듯하다.[100] 7월 16일 이홍장은 광주로부터 북상의 길에 오르며, 상해를 거쳐 북상하겠다는 노정을 밝혔다. 그런데 곧 바로 상해로 간 것이 아니라 홍콩에 들러 홍콩 총독 블레이크를 만났으며,[101] 7월 21일 상해에 도착한 이홍장은 병을 이유로 줄 곧 상해에 머물렀다. 또 8월4일에는 賞假 20일을 주청하였다.[102] 청정은 8월7일 이홍장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고 휴가를 윤허 하지 않은 채 북상만을 재촉하였다.[103]

8월 15일 북경이 연합군에 함락되었고, 이후로 러시아 외무대신 위테, 유곤일, 혁광등도 북상을 재촉하였다. 8월 24일 청정은 전권대신 이홍장에게 또 便宜行事 까지 허락하였다.[104] 그러나 이홍장은 9월 14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천진으로 북상 길에 올랐다.

이홍장이 상해에 머무른 2개월 동안 당시 북경에서는 의화단 진압을 추정하며 주전을 반대하던 주화파 인물 등이 보수배외파에 의해 계속 참살되고 있었고, 8월 9일에는 당재상의 자립군이 기의하여 정국이 더욱 혼미한 상태였기에 그는 북상을 꺼렸다.[105]

이홍장 그는 열강과의 선전기 국가의 위기 속 부름을 받고서도 난세 타결에 앞장서기 보다는 중앙 정국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될 때까지 마냥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홍장은 국가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당시 중국 제일의 정치가라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홍장 또한 서태후처럼 국가의 존망

---

100) 車瓊愛,「義和團運動時期 李鴻章의 政治 外交的 活動」,『明淸史硏究』5, 1996, pp.58. 그 외 이홍장이 북상을 결심한 것에는 청일전쟁 이전 그가 25년간 이상 누려왔던 권좌로 돌아갈 가능성을 당시 염두에 두고 있었고, 80이 다된 나이에 양광 독립이라는 모험을 시도하기 보다는 영예롭던 옛 시절로의 복귀를 소원하고 있었을 것이다.

101) 이홍장은 화의를 교섭하기 위하여 청정의 부름을 받아 북상할 계획이어서 블레이크는 이홍장을 홍콩으로 오도록 하여 이를 저지하고 이홍장으로 하여금 화남자주를 실행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중국의 분할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블레이크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홍장도 블레이크의 의견을 받아 드리지 않아 이홍장과의 합작은 무산되고 말았으며 이홍장은 북상하여 신축조약을 체결하는 청의 대표가 되었다.

102)『李文忠公全集』七, p.204.

103)『義和團檔案史料』上, p.446.

104)『光緖朝東華錄』四, p.4537.

105) 車瓊愛,「義和團運動時期 李鴻章의 政治 外交的 活動」,『明淸史硏究』5, 1996, pp.59.

을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안위와 집권 가능성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인물이었다. 북경함락 당시 東南互保에 가담하는 지방 당국은 더욱 늘어 처음의 강소·강서·안휘·호남·호북 외에 절강·산동·복건·광동 등이 참가했으며 사천·섬서 또한 이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결국 서태후는 서안으로 피난 가면서도 이러한 지방 당국의 독자적인 결정을 견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태후는 북경이 함락되어 서안으로 피난하는 도중 이들 지방 독무에게 그들의 호보노선을 추인하여 이를 열강과의 화의를 추진하는 돌파구로 삼으려 했다. 그리하여 " 조정의 본의는 본래 경솔히 개전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각국과 각 독무들에게 외국사신 및 口岸商民의 보호를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라는 전문을 보냈다. [106]

2. 唐才常의 自立軍과 孫文의 惠州起義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동남지역의 독무들은 비록 서태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군신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유위를 중심으로 하는 변법 유신파나 손문을 대표로 하는 혁명파는 서태후와 의화단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태후의 입지가 좁혀진 의화단 운동 기간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무술정변 이후 영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망명한 강유위와 양계초는 입헌 보황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자 영국의 지지 아래 남쪽에 국회를 성립시키고 정부를 조직하여 광서황제를 남쪽으로 모셔와 군주입헌정치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때마침 호남의 유신파로 담사동과 함께 이름이 알려진 당재상이 일본으로 오자[107] 강유위는 그를 귀국시켜 '勤王'운동을 전개하였다.

1899년에 당재상은 상해로 돌아와 장강의 회당, 수군들과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해에 정기회를 조직하고 거사를 획책하는 기관으로 삼았다.

---

106) 金培喆,「敎案과 義和團」,『講座中國史』Ⅵ, 1989, p.77.
107) 皮明麻,『辛亥革命與近代思想』, 陝西師範大學出版社, 1896, p.171.

정기회의 선언에서 反滿的이면서도 광서황제를 옹호하는 것이 나타나 유신파가 혁명파로 전환하여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으나 당재상은 아직 혁명파로 변신하지는 않았다.

당재상은 강유위의 지시를 받아 정기회의 이름을 자립회로 바꾸고 또한 조직을 비밀로 하여 호북, 호남, 안휘, 강서 등지의 가로회와 청군의 일부 사병과 연락, 자립군을 조직하고 勤王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자립군은 회당을 골간으로 흥중회 회원 유신파들이 참가하고 지식인들이 지휘를 맡아 관부와도 연락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의화단 운동이 절정기에 달하자 유신파들은 더 이상 북경에 머무르기 힘들어 상해로 모였다. 1900년 7월 당재상은 용굉·엄복 등 유신파 인물들을 상해의 영국조계로 소집하여 국회라는 회의를 열고, 중국의 자립권을 보전하고, 청정부의 중국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광서제를 복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후 자립군은 무한에 기관을 설치하고, 8월 9일에 안휘의 대통, 안경, 호남의 상덕, 호북의 신제, 한구 등 다섯 곳에서 기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재상은 여러 방면으로 장지동을 설득하여 양호지방을 독립시켜 중국의 분열을 가져오려 하였다.[108] 그러나 장지동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자립군은 기병의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강유위로부터 자금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자금이 오지 않아 기의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은 대통에서는 기병하였다가 고립, 결국 진압되어 실패하였다.

당재상은 마지막으로 8월 23일 무창, 한구, 한양에서 동시에 기병하기로 하였는데, 장지동은 이 시기 더 이상의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립군을 진압하였다. 장지동은 이홍장과 마찬가지로 결국 勦撫兩難에 빠진 청정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는 서태후의 부름에 응하였기에 당재상을 비롯한 2, 3백 명은 결국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109]

비록 당재상의 활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당재상이 자립군 기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손문은 동경에서 당재상을 만나 그에게 한구의 흥중회원 용성교를 소개하고 거

108) 당재상은 장지동이 세운 양호서원을 졸업하였으며 장지동의 신임을 받았다. (馬東玉,『張之洞大傳』, 遼寧人民出版社, 1989, p.376).

109) 林華國,『義和團史事考』, 北京大學出版社, 1993.

사를 협조하게 하였었다. 당재상은 강유위를 비롯한 보황회는 물론 흥중회의 기대를 받은 채 귀국하여 의화단운동이 확산되고 있을 때 거사를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 손문은 광주에서 기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특히 당시 일본의 대만총독 이옥원태랑으로부터 흥중회의 거사에 지원을 해주기로 구두상 허락받고 대만으로 가 혜주에서 기의하여 연해를 통해 복건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정사량을 혜주로 보내 거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00년 10월 8일 정사량은 혜주의 삼주전에서 회당을 모아 청군을 공격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삼다축에 이르렀을 때인 21일에 대오가 2만 여명으로 늘어나 하문으로 내려가 보급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내각을 구성한 이토히로부미는 무기의 수출을 금하였기 때문에 무기와 탄약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정사량 등도 홍콩으로 철수하여 기의는 실패로 끝났다.

한편, 사견여는 혜주기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광주에 가서 기의를 준비하였다. 이 계획은 광주를 점거할 생각은 아니었고 혜주기의 때 청군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사견여는 10월 28일 양광총독 서리인 덕수를 암살하기 위하여 폭약을 매설하여 터뜨렸으나 덕수는 죽지 않았고, 사견여는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동지들을 공개하지 않고 사망하였다.[110] 이처럼 의화단운동기 혁명파와 변법파의 정치적 움직임은 커져나갔고, 이들 또한 열강과 결탁하고 있었기에 서태후는 더욱더 빨리 의화단운동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110)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469-470.

Ⅳ. 辛丑條約과 西太后 政權의 沒落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선전 지시는 서태후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서태후는 선전 지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자신의 정권을 지켜내고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노력들을 펼쳤다. 이제 서태후의 일련들의 노력들과 그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11]

1. 辛丑條約

8월14일 북경의 내성과 자금성이 함락되기 직전 서태후는 광서제와 몇 명의 소수 관리들만을 데리고 황급히 북경을 떠나, 9월 10일 태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태후는 서안으로 발길을 돌려 10월 26일 서안에 도착하였다. 서안에 도착한 서태후는 국난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황실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서안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리고, 약 8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때 청 조정에서 소모된 생활비가 200여 만냥이나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경에서의 생활보다는 수배나 줄이고 줄인 것이었다. [112]

그런데 서태후가 비록 전쟁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제국주의 열강에 대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선전이 불리해지자 바로 화의로 돌아서려는 이중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서태후는 의화단 세력이 급속히 확대되니 정부의 위기감을 모면해 보려는 의도와 동시에 이에 동조하고 이용함으로써 정권 내부의 열강에 대한 적의를 일시에 발산하려 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결국 서태후는 북경이 함락되자 '洋人逐出'이라는 기대감이 실현될 수 없

---

111) 서태후는 열강과의 화의 및 의화단운동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일련의 노력을 보였다. ①동남호보 조인 ②보수배외파 처형 및 기해건저 취소 ③양무파 세력 지지 ④하조죄기 발표 ⑤신축조약 체결 ⑥각종 반란의 진압 ⑦광서신정의 단행

112)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432-433.

음을 인식하고 바로 열강과의 교섭에 들어가 사태를 수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난길에 올랐던 서태후는 8월 20일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下詔罪己를 발표하였다.[113] 그리고 서안으로 가는 도중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이홍장을 의화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다시금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열강과의 강화를 추진시켰다. 그리고 청의 군대가 어느 지방에서건 침략군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명하여 화의가 깨지는 것을 피하였다.

이홍장은 8월 25일, 모든 사태의 책임이 '拳匪'에 있음을 천명하고 그를 엄히 토벌하는 것이 강화의 전제라고 서태후에게 보고하였다. 서태후는 이를 수용하여 9월 7일 의화단의 발본색원을 명하였다.[114] 이에 따라 각지의 관병은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서게 되었고 의화단 세력은 열강 연합군과 관군의 협격에 점차 궤멸되었다. 그러나 직예와 산동에서 의화단세력이 속속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는 지연되었다. 당시 조정에서 산서 관리들에게 내린 명령을 살펴보면 '현재 각 국과 화의를 진행할 것이니 결렬 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양병이 진군하여 오면 즉시 먼저 관리를 보내 중지하도록 권하라'고 하였으며,[115] 심지어는 하남성에도 이와 유사한 명령을 내려 화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서태후는 이처럼 선전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약화될 조짐이 보이자 자기의 정권을 방어하기 위한 모습으로 전환하며 열강과의 교섭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북경에서 이홍장과 경친왕 혁광, 장지동, 유곤일 등이 열강과 교섭을 시작하자 서태후는 이들과 열강과의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열강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해 했다.

열강은 형식상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고 계속 서태후를 정점으로 한 청정부 유지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12월 23일 '議和大綱'12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議和大綱'12조는 중국을 무시해 버린 채 11개국 공사단이 만든 것으로서 조정 불

113) 車瓊愛,「義和團運動의 性格에 대한 考察 - 淸廷의 對策과 관련하여 -」,『梨大史苑』20, 1983, p.135. 서태후는 명목상 자신의 죄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하를 책망하였고, 대륙이 이처럼 무너지게 된 것은 대소공신들이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눈앞의 안일만을 탐하는 습성에 젖어있기 때문이라 비난하였다.

114) 金培喆,「敎案과 義和團」,『講座中國史』Ⅵ, 1989, p.78.

115)『義和團檔案史料』下, p.747.

가를 강화의 조건으로 청정부에 제시하였다. 혁광과 이홍장은 화의대강의 내용을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고, 전쟁을 조속히 끝맺기 위하여 서태후에게 이를 동의하여 주도록 청하였다. 당시 서태후의 바람은 청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가혹한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며, 열강이 제시한 화의 대강 12조에 염려스러웠던 조항이 없는 것과 자신이 사건의 우두머리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서태후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議和大綱' 12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토의하기 시작하여 장장 8개월의 토론 끝에 1901년 9월 7일 이른바 신축조약을 체결하였다.[116] 신축조약은 모두 12개조와 별도의 19개조 항이 첨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 내용은 첫째 백은 4억 5 천만 량의 배상금을 연리 4리로 39년 분할 지급하며 (원리 합계 9억8천2백여 만량) 해관세·통상구안상관세·염세 등을 저당으로 설정한다. 각 지방에서 배상할 액수와 배상금배분은 다음 표와 같다.[117]

교단	배상액	합계	중앙귀속 배상액	실제배상액
천주교	18,353,605	21,603,690냥	5,386,000냥	16,217,690냥
기독교	3,210,085			
기타	40,000			

	나라	배상액(냥)	비율(%)
1	러시아	13,0371,120	28.97
2	독일	90,070,515	20.02
3	프랑스	70,878,240	15.75
4	영국	50,620,545	11.25
5	일본	34,793,100	7.73
6	미국	32,039,055	7.32
7	이탈리아	26,617,005	5.92

116) 8개월간의 토론에서 주를 이룬 것은 배상금의 액수와 지불방법을 둘러싼 의견대립이었다.
117) 周育民, 『晩淸財政與社會』, 上海人民出版社, 2000, p.382.

8	벨기에	8,484,345	1.89
9	오스트리아	4,003,920	0.89
10	네덜란드	782,100	0.17
11	에스파냐	135,315	0.03
12	포르투칼	92,250	0.02
13	노르웨이, 덴마크	62,820	0.01
14	기타	149,670	0.03
합계		450,000,000	100

둘째 대고 포대를 해체하고 북경 일각에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며 북경과 상해간을 잇는 철도 연변에 열강군대가 주둔한다. 셋째 중국인은 금후 열강에 반대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어기면 엄중히 처벌한다. 지방관이 관내의 배외사건을 진압하지 않으면 즉시 혁직하여 '永不敍用'에 처한다. 그리고 의화단에 관련되었던 중앙의 왕대신, 지방의 순무 이하 각급 관리를 처벌한다. 배외사건이 발생했던 성진에서는 과거 실시를 5년간 정지한다. 넷째 총리아문 대신에 외교부를 설치하여 6부 위에 둔다. 왕공이 이를 주관하고 별도로 2명의 상서를 두며 그중 1명은 군기대신으로 한다. 다섯째 기왕의 통상조약에 대해 열강측이 요구하면 청측은 이에 협상하여 수정할 수 있다.[118]

그런데 신축조약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4억 5천만 량의 막대한 배상금으로 이로 인해 청조에 대한 민중의 불신은 더욱 격하게 확대되었다. 신축조약에서 규정한 배상금인 4억5천만 량은 곧 중국의 4억 인구에 대해서 1인에게 1량의 은이 할당된 셈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이 배상금이 의미하는 것은 곧 열강이 전 중국 인민에게 징벌로써 벌금을 내린다는 뜻과 같았다.

그러나 서태후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4억 5천만 량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지라도 조속히 사태의 수습을 위해 조약 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열강의 요구에 따라 의화단 운동의 책임자 징계 문제가

118) 金培喆, 「敎案과 義和團」, 『講座中國史』Ⅵ, 1989, p.80.

제기되자 주전을 주장하던 왕과 대신들 즉 수구파 인물들을 서태후는 대대적으로 처벌하였다. 그리하여 1900년 9월 25일 장친왕 재훈·이친왕 부정·패륵 재렴, 재영·단군왕 재의 , 보국공 재란, 도찰원좌도어사 영년, 협판대학사 이부상서 강의, 형부상서 조서교 등에 대하여 작위를 삭탈하고 파직하였다. 또한 1900년 11월 13일, 1901년 2월 13일, 1901년 2월 21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열강의 요구에 따라 보수배외파의 처벌을 단행하고 재훈·영년·조서교·육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사형을 단행하였다.[119] 그리고 주모자인 단왕 재의는 1900년 12월 의화단 사태의 원흉으로 규명되면서 죽음은 면했으나 작위를 박탈당하고 新彊에 억류하였다.[120] 재의의 아들 부준 또한 1901년 귀경길에서 재의가 의화단을 종용하여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했기에 부준은 皇太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황태자 위에서 폐위시켰다. 반면 의화단의 소탕을 요구하다가 파직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복직되었다.

그런데 의화단 세력을 등에 없고 開戰을 시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의화단을 진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서태후의 행동과 그녀의 치욕적인 조약 체결은 민중들의 반감을 고조시키기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반외세를 부르짖었던 의화단과 민중들의 '扶淸滅洋'의 구호는 점차 '滅淸'·'掃淸'으로 전이 되어갔다. 즉 이제 의화단 운동으로 인하여 서태후가 이끄는 청조 정부는 민심까지도 등져 버린 것처럼 비쳐졌기에 청조는 이제 민중들 사이에서 열강 세력과 함께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되어갔던 것이다. 이는 어쩌면 서태후가 의화단 운동을 초무책에서 초토책으로 전환한 데 대한 당연한 대응이겠지만, 이는 청조의 타도 없이 열강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민중 차원에서의 반제인식의 심화라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1901년 5·6월간에는 사천의 파현일대에 '滅淸剿洋興漢'을 내세운 의화단 명의의 게첩이 유포되었고, 1902년 4월에는 직예 광종에서 무거 오연빈과 의화단 운동 초기의 수령이었던 조삼다가 '掃淸滅洋'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 반란은 3·4만의 무리로 확대되어 일시 광종과위현 등지를 함락시키기도 하였으나, 직예총독 원세개가 파견한 단기서 휘하의 관군과 이를 지원한 독일·프랑

119)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40.
120)『義和團』四,「辛丑和約條文」, pp.494-495.

스・일본의 화북 주둔군에 의해 이들은 진압되었다.[121]

서태후는 신축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지만, 청조의 위기는 서태후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악화되어갔다. 그리하여 의화단운동이후 각 지역에 혁명단체들이 속출하였으며,[122] 청조말년 10년 동안은 민변이 도처에서 수시로 일어나게 되었다. 1902년부터 1911년 까지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 민변을 살펴보면 모두 1300여 차례나 되었다. 민변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등장하지만 크게, 항연과 항세투쟁, 반기독교 투쟁, 비밀결사의 거사, 기민의 폭동-창미운동, 노동자의 파업과 상인의 철시 투쟁으로 전개되어갔다.[123]

2. 光緖新政

먼저 의화단 사건에 대한 초기의 서태후 생각, 그 뒤 생각, 의화단 사건 종결 이후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德齡那主의 淸宮二年記를 잠깐 살펴보자.

> 어느 날 서태후의 비서였던 德齡那主가 서태후에게 “1900년도의 의화권 비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서태후의 답변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나의 일생 중에 한 가지 실수를 했다. 바로 의화단 사건이다. 어느 날 端王과 瀾公이 極力担保하여 이야기하기를 의화단은 천상에서 내려와 중국의 숙원인 양인구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그들이 지적한 점은 종교상의 문제이다. 나는 예수교에 대하여 恨이 많았다. 拳匪는 洋敎라고 생각했다. ....뒤에 端王이 권비 우두머리를 頤和에 데리고 와 大殿에 全体大監을 소집해 그의 안면에 십자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했

121) 金培喆,「敎案과 義和團」,『講座中國史』Ⅵ, 1989, pp.80-81.
122) 호남의 화흥회, 호북의 과학보습소, 절강의 광복회, 복건성의 익문사, 안위성의 청년여지학사, 강소의 여지학회, 강서의 역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123)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p. 607-613.

다. 권비우두머리는 “십자가는 보통사람은 보지 못하고 다만 나만이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그 外 入宮할 때 二人의 大監이 예수교도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나는 아주 화가 났고 端王이 권비를 입궁 시킬 권리가 없다고 했다. 端王은 頭目의 法力이 대단하여 양인을 구축 할 수가 있고 참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神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 뒤에 二大監의 이름은 밝혀졌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시체가 발견 되었다. 뒷날에 권비두목이 분향하러 와서 자신이 洋敎人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端王의 제의로 두목이 매일 입궁하여 대감들에게 각종무술을 연마하였다. 端王은 북경시민이 모두 의화단원이니 이를 배경으로 외국공사관을 파괴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반하여 軍機大臣 榮祿은 拳匪는 革命者요 인민을 선동하고 양인을 살해하여 국가에 재난을 초래케 하는 秘密集団이라고 반대하였다. 보수적인 董福祥은 공사관공격을 방조하자고 했다. 榮祿은 공사관을 파괴함으로써 강대한 외국이 중국을 구적으로 삼을 것을 두려워하여 극력 반대하였다. 端王과 瀾公의 공사관파괴와 양인살해제의를 나는 사태가 엄중하니 망동은 불가하다하고 榮祿의 의견에 기울었다. 그러나 拳匪에 반하는 것은 榮祿一人이요 . 不可한 일이었다. 뒤에 拳匪에 의하여 일이 저질러졌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단왕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치 못하고 외국의 군대를 도발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나의 일생의 일대실수이다.[124]

이 기록에서 서태후는 외국 군대의 도발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결단을 일생일대의 실수라며 후회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의화단 운동으로 인해 서태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짐작하게 해준다. 서태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1901년 1월 29일 피난 간 서안에서 변법을 약속하는 상유(‘預約變法′)를 반포하였다. 이와 같은 상유는 서태후가 의화단 운동기를 통해 전과 같은 통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서태후는 1월 29일 상유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외국의 장점

124) 『德齡那主』, 「淸宮二年記」, pp.141-142. (金東愛, 『西太后 硏究,』, 淑明女大大學院, 1975, pp.43-45에서 再引用.)

을 받아들여 부강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정부 고관에게 제시하도록 명령하는 등 각계에 자문을 구했다. 이 조칙이 반포된 이후 각계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그 중 兩江總督 劉坤一과 湖廣總督 張之洞이 연서하여 올린 상소의 내용을 서태후가 보고 가장 완비된 것 이라하며, 그것을 자세하게 읽어본 후 그대로 시행할 결심을 하였다. 서태후가 이와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한데는 개혁을 요구하는 각종 정치적 움직임과 양무파 또는 동남지방 독무 세력을 회유하기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으며, 열강이 신정의 단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25] 즉 이 신정은 의화단운동을 통해 성장한 지방정부의 세력과 열강의 주장이 강력히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동년 4월 督辦政務處를 설립하고, 奕劻과 李鴻章 등 6명을 督理大臣에 임명하며, '新政'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청말의 '신정'은 무술변법보다 훨씬 근대화 성격이 더 강한 개혁이었다. 1901년 - 1905년까지 청정부가 신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포한 항목은 30여 항목에 달하였다. 신군의 훈련, 과거제의 폐지, 재정의 확충, 관제의 개혁, 산업의 진흥과 장려 등이 신정의 주요 개혁 내용에 해당된다. 정치적으로는 필요 없는 관청과 관원을 없애겠다는 무술변법의 노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6부 체제를 폐지하고 外務部, 商部, 學部, 巡警部, 郵電部 등의 정부기구를 신설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무술변법 때 시행했던 상공업 장려와 기업 발전에 대한 각종 조치를 수용하면서, <商人通例>, <公司律>, <破産律>, <商會簡明章程> 등의 다양한 경제 법규를 반포하고,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군사적으로는 무술변법 때의 주장대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군제를 개편함과 동시에 현대식 훈련과 현대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군의 전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문화 교육적으로는 무술변법 때 제기되었던 과거 제도의 개혁, 신식학당의 설립, 유학 장려 등의 정책을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신식학당을 대대적으로 설립하고 해외에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중

125) 제국주의 열강은 신축조약체결이후 정치적으로 청정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정의 개혁을 서태후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때 총세무사 하트(R. Hart)가 청정에게 제출한 『更新節略』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국 최초의 교육제도인 <欽定學堂章程>과 <奏定學堂章程>을 제정하였다.[126]

그러나 당시 중국의 국내외 환경은 서태후에게 개혁을 착실히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이 광서신정은 오히려 가혹한 세금 징수로 인해 민중의 반청투쟁을 가열시켰으며, 만청 귀족과 한인관료·군벌의 모순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한 신군의 조직은 오히려 이후 북양군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후에 중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27]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국내외 여론은 입헌 국가가 전제 국가를 이긴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도 입헌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다. 헌정 개혁은 정치 체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타파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이 헌정은 서태후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서태후가 본래 실시하려고 하였던 변법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던 강유위의 변법과는 분명한 경계를 그었었다. '유신이 극에 달해 康逆의 난이 있었고, 수구가 극에 달해 拳匪의 난이 있게 되었다'고 하여 유신과 수구파의 노선과는 다름을 나타내었다.[128] 이는 서태후가 실시하려했던 광서신정은 양무파의 중체서용이 개혁의 기조가 된 것이었고, 각지에서 일어나는 입헌군주제의 시행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서태후는 원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06년 서태후는 광서황제에게 명하여 '예비방행헌정(預備倣行憲政)'을 선포하고 관제개혁에 착수하였으며, 1908년 서태후와 광서황제는 <예비 입헌사업 추진 9개년 준비 조칙(九年預備立憲逐年推行籌備事宜諭)>를 반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73세 고령의 서태후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으며, 그녀의 죽음으로 개혁은 구심점을 잃고 내분에 휩싸여 방황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129] 당시 서태후가 실시한 신정은 청조의 마지막 개혁이었고, 이 개혁의 실패는 곧 청조멸망의 결과를 낳았다.

---

126)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50.
127) 喬志德,『辛亥革命前的10年』, 山西人民出版社, 1987, pp.238-269.
128)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p.449.
129) 서태후의 죽음으로 인한 신정의 미 완결은 서태후가 헌정을 단행하려고 하였다는 주장과 끝까지 헌정의 요구를 지연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을 낳았다.

Ⅴ. 맺음말

의화단은 1898년 산동 반도를 중심으로 미신적 신통력을 믿는 군중을 모아 교회를 불태우는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의화단운동은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반대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무모한 측면이 없지 않아 중국을 대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초기 의화단의 활동은 청 조정에게 큰 위협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의화단운동은 열강의 횡포와 이권 침탈이 원인이 되었으며, 태평천국운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고 의화단 전체가 통일된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청정부와 서태후는 강경한 진압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의화단이 自衛保家하는 활동으로 비춰진 면이 컸다. 그러기에 청조정은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에 의화단을 진압하는 조치를 취하며, 의화단에 대해 강경대처와 달래기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청조정이 이처럼 의화단에 대해 강경대처와 달래기를 병행하는 사이 의화단 세력은 점차 그 세력을 더욱 확대하여, 1900년 6월 북경으로 진격하여 서양식 건물과 시설물(교회, 병원, 철도, 통신)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을 습격하여 외국인을 살해하는 등 배외운동으로 확대 되어갔다.

의화단에 의하여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외국인들이 살해당하는 참사가 중국에서 벌어지자, 열강 8개국(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미국, 이탈리아)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무력으로서 공동 출병하였다. 서태후는 의화단과 청조정의 의화단 대응에 항의하는 열강과의 마찰을 가능한 피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원하였으나 열강의 군대 파견으로 말미암아 서태후는 이제 열강과의 전쟁이냐 의화단의 진압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당시 청조정은 청일전쟁과 무술정변으로 인하여 양무파 세력과 변법파 세력이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고 수구파가 완전히 장악해있었다. 중국 근대 사상 청조정이 수구파 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것은 이 시기가 처음이었다. 청조를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된 수구파는 부청멸양을 제시하는 의화단 세력을 등에 없고 열강에 선전 포고를 하자고 서태후에게 건의하였다. 서태후는 의화단의 진압 주장과 의화

단을 초무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 둘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였지만 결국 선전을 지시하였다. 이는 의화단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되어있었고, 대다수의 보수배외파가 선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서태후가 보수배외파의 손을 들어주고 선전 포고한 것에는 열강의 반대에 부딪혀 기해건저 사건이 실패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기인했으며, 부청멸양을 주장하는 의화단과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의화단의 진압을 요구하는 열강의 간섭 사이에서 서태후는 결국 의화단의 편에 서서 선전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6월 17일 결국 광서제의 정권 복귀를 은연중 요구하는 열강의 귀정조회문서가 접수되고, 열강에 의해 대고포대가 점령당하자 서태후는 열강이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혀 6월 21일 열강에게 대대적인 선전 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귀정조회문서가 선전지시 이후인 3-4일 뒤 허위로 판명되었고, 열강의 군대가 계속 증축되어가자 전세가 불리해질 것도 감안한 서태후는 6월 29일부터 바로 열강에게 의화단을 곧 진압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전지와 국서를 보냈다. 국내에는 선전의 지시를 대외적으로는 화의라는 이러한 이중된 조치를 조심히 취한 것이다. 이점은 기존 서태후의 평가처럼 지나친 정권야욕과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된다. 그리하여 서태후는 이러한 이중된 조치를 취하며 열강과 화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열강은 서태후의 화의에 응하지 않았고 그들이 초기 의도한 대로 북경을 함락하려 하였기에, 서태후는 서안으로 피난을 가야했다. 서안으로 피난 간 서태후는 열강과의 화의를 위해 청일 전쟁 이후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이홍장과 양무파 세력을 다시금 청 중앙 정계에 진출시켰다. 이는 이들을 통해 의화단 세력을 등에 업고 서태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서제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독단적인 활동을 보이는 단왕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열강과의 선전 과정에서 이홍장과 같은 양무파 지방 향신 세력이 열강과 결탁하는 것을 막고, 또 이들을 이용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열강과 화해 교섭을 하기위한 하나의 조치이자 방책이었다. 실제로 청조의 선전이 있을 당시 서태후가 두려워 한대로 중앙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이홍장과 지방 향신, 양무파, 변법파, 혁명파의 열강 접촉은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그 예로 청조가 이홍장의 북상을 요구했을 당시 이홍장은 양광독립, 동남호보, 손문 또는 열강과의

결탁 등을 꾀하며 북상을 지연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장지동에게는 양호독립이 제기되었고, 당재상과 손문 또한 열강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곧 서태후에게 있어 의화단 운동기는 자신의 정권과 청조의 존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여러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대두한 시기였다. 서태후는 이러한 위험을 수습하기위해 그녀의 허락 없이 지방 독무들이 열강과 독자적으로 체결한 동남호보조치에 견책하지 않으며,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이홍장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다시금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청조의 분열의 시기가 될 수 있었던 의화단기 지방의 자립화 경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연합국이 제시한 '辛丑條約'(12개 조항)에 이들을 이용하여 조인하게 했다. 신축조약의 내용은 4억 5천만 냥의 막대한 배상금 지불과 북경에 외국군대 주둔을 인정하는 굴욕적인 조약이었으나 서태후는 결국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청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었다. 또한 열강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화단운동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서태후는 보수배외파를 처단하고 기해건저를 취소하며 의화단을 진압하는 조치로 전환하였는데 이 또한 민중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서태후는 전과 같은 통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약변법을 발표하며 광서신정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한데는 개혁을 요구하는 각종 정치적 움직임과 양무파 그리고 열강을 회유하기위해 필요했으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였다. 그러나 비록 서태후가 이 신정에 많은 성공을 기도하였으나 신정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때늦은 개혁이었으며 또 그 효과성은 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서태후가 실시하려했던 광서신정은 양무파의 중체서용이 개혁의 기조가 된 것이었고, 각지에서 일어나는 입헌군주제의 시행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지연했기 때문에 결국 혁명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져나가 청조 멸망의 결과를 가져왔다.

흔히 서태후를 수구파의 보수, 기회주의자, 근대화 역행의 주범으로 평가 내린다. 의화단운동기 서태후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서태후의 일면이 가장 많이 엿보이는 시기였다. 의화단의 활동 초기 서태후는 의화단을 해산 또는 진압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의화단의 세력을 더욱 확대시켰고, 이로 인해 열강의 군대가 파견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의화단의 활동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초한 것이 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올 위험을 예측해보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태후는 그 대책에 미흡했으며, 열강의 간섭이 심화되고 급기야 군대가 파견되는 상황 속에서도 서태후는 어리석게 평화적인 해산의 방법으로 의화단의 투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한 열강의 압력과 군대파견으로 인해 결국 의화단 세력을 등에 없고 開戰을 시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의화단을 진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서태후의 행동은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서구 열강들과 치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그 열강 세력을 이용하여 의화단운동을 진압하였기에 그녀의 모습은 철저히 제국주의 세력에 의존한 인물로도 비쳐진다. 의화단운동기의 서태후는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권모술수로서 민중의 애국적인 의지를 꺾어 버렸고 세계 정치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의화단운동기 때 그녀가 보여준 지나친 정치욕은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參 考 文 獻

1. 史料

『德齡那主』, 臺湾東方書店, 1960.

『義和團』(一-四), 上海人民出版社, 1957.

故宮博物院明淸糖案部,『義和團檔案史料』, 北京中華書局, 1959.

梁啓超,『飮氷室全集』, 中華書局, 1972.

吳汝綸,『李文忠公全集』, 臺北文海出版社, 1965.

李守孔,『李鴻章傳』, 臺北學生書局, 1985.

朱壽明,『光緖朝東華錄』, 北京中華書局, 1909.

胡濱,『英國監皮書有關義和團運動資料選譯』, 中華書局, 1980.

2. 著書

민두기,『東洋史硏究資料輯要』, 知識産業社, 1981.

辛勝夏,『近代中國: 改革과 革命』下, 大明出版社, 2004.

李銀子,『義和團運動前後의 山東』, 高麗大學校出版部, 2002.

李時岳 著; 李銀子 譯,『近代 中國의 反基督敎 運動』, 고려원 1992.

車瓊愛,『義和團運動과 帝國主義 列强』, 유영사, 1997.

金家瑞,『義和團史話』, 北京出版社, 1980.

喬志德,『辛亥革命前的10年』, 山西人民出版社, 1987,

路 遙,『義和團運動』, 巴蜀書社, 1985.

馬東玉,『張之洞大傳』, 遼寧人民出版社, 1989.

謝俊美,『翁同龢傳』, 中華書局, 1994.

林華國,『義和團史事考』, 北京大學出版社, 1993.

周育民,『晩淸財政與社會』, 上海人民出版社, 2000.

德 齡,『西太后秘話:その戀と權勢の生涯』, 東方書店, 1983.

小林一美,『義和團戰爭と 明治國家』, 汲古書院, 1986.
三石善吉,『中國、一九00年 : 義和團運動の光芒』,中央公論社, 1996.
村松祐次,『義和團の研究』, 巖南堂書店, 1976.
坂野正高,『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社, 1973.
皮明麻,『辛亥革命與近代思想』, 陝西師範大學出版社, 1896.

3. 論文

金東愛,「西太后 研究」, 淑明女大大學院, 1975.
秋憲樹,「西太后와 淸朝末期의 政情」,『亞細亞女性研究』1, 1962.
表敎烈,「西太后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 -辛酉政變의 再檢討-」,『東洋史學研究』21, 1985.
許命吉,「西太后 政治行動 樣式에 관한 一考察」, 淑明女大大學院, 1984.
金培喆, 「敎案과 義和團」,『講座中國史』Ⅵ, 1989.
金鍾健,「冠縣 義和團의 仇敎運動」,『大丘史學』39, 1990.
_____,「19世紀末 山東地域 反敎會活動과 初期義和團運動」, 慶北大大學院, 1996.
_____,「報告:義和團運動 100주년 國際學術討論會」,『近代中國研究』2, 2001.
_____,「淸 中,後期 山東地域 民間秘密宗敎 -離卦敎의 成立과 活動을 中心으로-」,『中國史研究』23, 2003.
_____,「義和團運動 前後의 山東-民間宗敎結社와 拳會에 관한 研究에 대한 書評」,『中國近現代史研究』18, 2003.
金希敎,「義和團運動이 제 2 차 헤이노트에 미친 影響」,『歷史學報』138, 1993.
朴月羅,「義和團運動時期의 東南互保에 대한 一考察」,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1.
朴英淑,「義和團運動의 性格에 대하여 -"扶淸滅洋"구호를 中心으로-」, 成均館大敎育大學院, 1994.
辛容石,「義和團運動 發生背景에 관한 一考 -民敎不和와 流民증가-」,『湖西文化研究』8, 1989.
_____,「現代中國의 義和團運認識 -最近의 研究動向을 中心으로-」,『東洋學研究』

1, 1989.
李啓俊,「義和團 形成에 대한 再考察」, 全南大大學院, 1985.
李尙根,「義和團의 內容과 性格에 對하여」, 慶熙大大學院, 1969.
李銀子,「淸廷의 義和團 對策을 통해 본 保守排外派의 動向」, 高麗大大學院, 1988.
_____,「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中國學論叢』8, 1994.
_____,「義和團運動 硏究史에 관한 事實考證: 義和團史事考」,『中國現代史硏究』8, 1999.
_____,「義和團運動 이후의 山東, 1901-1910 -省當局의 對民政策을 中心으로-」,『東洋史學硏究』79, 2002.
_____,「地域社會의 觀點에서 본 義和團運動의 起源」,『中國學報』49, 2004.
劉和實,「義和團運動에 關한 一考察」, 梨花女大大學院, 1973.
_____,「義和團運動에 관한 考察」,『梨大史苑』12, 1975.
趙明哲,「義和團事件과 日本의 外交戰略 -滿洲問題와 韓國問題를 中心으로-」,『日本歷史硏究』8, 1998.
_____,「義和團事件과 東亞細亞의 政勢變化 -日本의 外交戰略을 中心으로-」,『梨花史學硏究』29, 2002.
車瓊愛,「義和團運動의 性格에 대한 考察-淸廷의 對策과 관련하여-」,『梨大史苑』20, 1983.
_____,「義和團의 形成過程에 대하여」,『梨大史苑』22·23, 1988.
_____,「日本의 義和團運動 鎭壓戰爭 參加에 對한 一考察」,『梨花史學硏究』19, 1990.
_____,「義和團運動과 帝國主義 列强 -義和團運動의 鎭壓過程을 中心으로-」, 梨花女大大學院, 1994.
_____,「獨逸의 義和團運動 鎭壓戰爭 參加에 對한 一考察」,『東洋史學硏究』50, 1995.
_____,「義和團運動 鎭壓過程에서의 列强間의 角逐과 그 推移」,『東洋學硏究』2, 1996.

_____,「義和團運動時期 英國의 對中國政策」,『慶熙史學』20, 1996.
_____,「義和團運動時期 李鴻章의 政治 外交的 活動 -李鴻章에 대한 評價와 관련하여-」,『明淸史硏究』5, 1996.
_____,「韓國人의 義和團運動 認識 및 이를 통해서 본 世界認識」,『東洋史學硏究』84, 2003.
_____,「義和團運動 鎭壓戰爭이 韓國의 社會, 經濟에 미친 影響」,『中國現代史硏究』23, 2004.
_____,「義和團運動 鎭壓戰爭으로 인한 韓國의 國際的 環境의 變化와 對應」,『明淸史硏究』24, 2005.
玄光浩,「대한제국의 대러시아정책-大韓帝國 樹立과 義和團事件時期를 中心으로-」,『東方學志』136, 2006.
_____,「대한제국기 주한러시아공사의 활동-義和團事件과 英日 同盟締結을 中心으로-」『歷史學報』190, 2006.
_____,「의화단사건 이후 일본의 대한정책」,『湖西史學』45, 2006.
吳民貴,「慈禧太后與義和團-兼與丁名楠先生商權」,『華東師大學報』1, 1981.
張玉田,「庚子那拉氏對外宣戰遠因的探討」,『遼寧大學學報』4, 1982.